

<정석가(작자 미상) - 수능특강 12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9A 고3 평가원>

(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파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파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
 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위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애타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껌질 벗긴 주추리 삼대*
 *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어나 닳이런들 남 옷길 뻔하였
 어라.

- 작자 미상 -

- * 거머희뜩: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거둬거둬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삼(麻)의 줄기.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2.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
 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
 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균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
 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
 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
 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
 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
 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하
 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②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머희뜩'한 것을 향해 '위령통탕' 건너
 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
 을 공감한다.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
 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
 한다.
 ⑤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
 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
 한다.

정석가(작자 미상) <15-9A 고3 평가원>

[1~3]

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 ⑤ (가)의 '천 년을 외파로이 살아간들'을 보면, '천 년'과 '-니들'('니라고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에서 상황의 가정을 과장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버선을 벗어 풀에 품고 - 워령통당 건너가서'에서는 황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②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 (가)는 설의적 표현이 쓰였으므로('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민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가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진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대조는 상반된 내용을 나란히 배열하는 표현 방법이고,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부분이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 되풀이 되는 표현 방법(예를 들어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으면')이다. (가)와 (나) 모두 대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연쇄법 역시 어느 작품에도 쓰이지 않았다. ④ 격정적이라는 말은 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라고 보기 어렵다. (가)는 비유와 가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격정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고, (나)는 해학적 어조에 가깝다. 또한 (나)는 입을 맞이하려 나가는 화자의 과장되고 해학적인 행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2. [출제 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 ③ <보기>에서는 고려 가요가 궁중의 약곡으로 편입된 의도와 맥락을 제시하여, (가)의 고려가요가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노래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한 임금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을 풀이한다면, '바위'에 '떨어진들'은 임(임금)과의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으로 풀이되고, 이것은 다시 '천 년'을 '외파로이' 사는 것과 연결되어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이 끊어질리아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임(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민음'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의'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 ② <보기>는 사실시조의 독자가 웃음을 지으면서도 내용에 깊게 공감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화자의 착각에서 낭패로 이어지는 행동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 행동 이전의 절실함과 애뜻함 등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②는 <보기>의 사실시조의 해학성에 관한 설명을 충실히 참고했고, (나)의 화자가 한 착각과 거침없는 행동을 <보기>와 적절하게 관련지었으므로 그 이해한 바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입이 온다는 약속을 들은 다음 저녁밥을 지어 먹었고 대문 지방에 앉아서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저녁밥을 짓다가 입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집 안 마당을 서성대는 것이 아니라 대문 지방에 앉아 있으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④ 화자는 '임'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삼대'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고 남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⑤ 화자는 '밤'에 관하여 '임'이 오지 못하게 한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웃음을 덜 살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석가(작자 미상) - 수능특강 12p 관련>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1)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제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제상이다
선왕성대(先王聖代)에 노니아와지이다 <1연>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너지아
 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너지아
 유덕(有德)하신 일을 여의아와외지이다

<2연>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오이다*
 그 꽃이 삼동(三洞)이 피거지아
 그 꽃이 삼동(三洞)이 피거지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와외지이다 <3연>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그 옷이 다 헐어시아
 그 옷이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4연>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일을 여의아와지이다 <5연>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잇단 그즈리잇가
즈믄 해를 외오곰 여신들
즈믄 해를 외오곰 여신들
신(信)잇단 그즈리잇가 <6연>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4)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 마르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므른 아즐가 여히므른 질삼비 브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르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뤘디리 <1연>

구스리 아줄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긴히쎈 아줄가 긴히쎈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즈문 히를 아줄가 즘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줄가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2연>

대동강(大同江) 아줄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빙 내여 아줄가 빙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 가지 아줄가 네 가지 렵난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널빤에 아줄가 널빤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줄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줄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빙 타들면 아줄가 빙 타들면 짓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3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 접주하오이다: 접붙입니다.

* 철릭: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화자가 처한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후렴구에 의미를 담아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5. (가)에서 <보기>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고려 속요는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흥을 돋우는 동시에 군왕의 은덕을 칭송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내용을 삼입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궁중악으로서 격식을 갖추며 동시에 그 자리에 참석한 군왕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연 ② 2연 ③ 3연
④ 4연 ⑤ 5연

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고려 시대에 창작된 시가로 주로 민중 사이에 널리 전해진 속요이다. 속요는 구전되어 전해지다 후대에 기록되었으며, 민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변용되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등장하기도 한다. 속요에는 전체 시가의 내용적 맥락과 관계 없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절이 특정 정서를 노래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당대에 유행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편 속요의 내용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들의 숨김 없는 인간성을 나타낸 것이다. 허례허식이 없고 도학적 제약을 받지 않은 풍부한 감정과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① (가)의 2연과 (나)의 1연의 여음구 비교를 통해, 속요는 특정 작품이 다른 작품의 창작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의 5연과 (나)의 3연의 내용 비교를 통해, 속요에는 전체 시가의 내용적 맥락과 관계없는 구절이 삽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가)의 1연과 (나)의 1연의 구절 비교를 통해, 속요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가)의 3연과 (나)의 3연의 내용 비교를 통해, 속요에서 다룬 주요 내용에 자연 속에서 사는 화자의 만족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의 6연과 (나)의 2연의 구절 비교를 통해,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변용되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겠군.

정석기[작자 미상]

[4~6]

4.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④ (가)와 (나)는 모두 각 연의 구절을 반복하며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제시된 여러 상황들은 가상의 상황들일 뿐, 실제 상황은 아니다. ② (가)와 (나) 모두 ‘그즈리잇가(끓어지겠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후렴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5. [출제 의도] 사구의 의미

① 1연은 다른 연들과 다르게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에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삽입된 구절이라 볼 수 있다.

6.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⑤ <보기>에서 고려 속요의 유행하던 구절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부분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가)의 6연과 (나)의 2연은 같은 내용으로 고려 속요가 당시 민중에게 널리 구비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2연의 여음구는 ‘나난’이며 (나)의 1연의 여음구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이다. 두 여음구 사이의 관련성은 찾기 힘들다. ② (가)의 5연과 (나)의 3연의 내용은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③ (가)의 1연은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으며, (나)의 1연은 임과의 이별에 슬퍼하며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관용적 표현을 통해 자연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가)의 3연과 (나)의 3연은 모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사는 화자의 만족감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홍망이 유수하니(원천석) - 수능특강 38p 관련>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학년도 대수능>

-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나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 (다) 홍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홍안 :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만월대 : 고려의 왕궁 터.

* 목직 : 목동의 피리.

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8.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느냐'는 각박한 세대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9. (다)와 <보기>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희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홍망이 유수하니(원천석) <14학년도 대수능>

[7~9]

7. [출제 의도] 화자의 정서 파악

- ① (가)에서는 '고운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서는 '백골'로 묻힌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에서는 멸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각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시적 화자의 공통된 처지와 그로 인한 좌절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③ 화자가 호충의 임무를 담당한 (가), 화자가 죽은 이의 묘를 찾아간 (나), 이전 왕조의 멸망을 유수(有數, 정하여진 운수나 순서가 있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화자의 (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서러움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④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가)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세 작품의 주된 정서는 모두 '경외감'과 거리가 멀다. ⑤ 세 작품 모두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자신의 이념과 사회 현실의 대립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서 비롯하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8.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 ⑤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라고 한 것은 잔을 권하는 상대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별한 입파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 자신이 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자 자신을 '(울면서 밤길을 가는) 저 물'에 빗대어('내 안 같아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정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④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과 사후의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9.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 ② (다)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畵)'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대비적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보기>가 그렇지 않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③ (다)의 '눈물 겨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자연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다)의 시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홍진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와 같이 부르고 질문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홍망이 유수하니~(원천석), 구지가(작자 미상) - 수능특강 38p 42p 관련>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
머리를 내밀어라 首其現也
내밀지 않으면 若不現也
구워서 먹으리 燔灼而喫也

- 작자 미상, 「구지가」 -

(나)

백설(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梅花)는 어니 곳에 피엿논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 이색 -

(다)

홍망(興亡)이 유수(流水)하니 만월대(滿月臺)도 ㉠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호노라

- 원천석 -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령형 어조를 통해 대상을 위협하고 있다.
- ② 직설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대상을 협박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 ⑤ 반복적 호명을 통해 소망을 들어줄 대상을 부르고 있다.

1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에 대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 중에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으로 창작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에 담긴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가)는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탄생 신화에 삽입된 노래로, 새로운 임금의 출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고려 왕조가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고려 멸망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다)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탄생한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고려의 멸망에 대한 화자의 소회를 담고 있다.

- ① (가)의 '머리를 내밀어라'에서 '머리'는 가락국의 수로왕을, '내밀어라'는 임금의 출현을 기원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겠군.
- ② (나)의 '백설'은 고려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을, '반가운 매화'는 고려를 지켜줄 충신을 상징하겠군.
- ③ (나)의 '석양'은 저물녘의 시간적 배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다)의 '홍망이 유수'에서 '홍망'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을 건국을, '유수'는 나라가 망하고 생기는 일도 자연의 섭리와 같음을 나타내겠군.
- ⑤ (다)의 '지나는 객'은 화자가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눈물'을 통해 고려의 멸망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홍명이 유수하니~(원천석) / 구지가(작자 미상)

[10~12]

10.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③ (가)에는 설의적 어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으리'는 '구으리이다'의 생략된 표현으로 '구워 먹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머리를 내밀어라'에서 명령형 어조로 대상을 위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머리'를 내밀라고 하며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화자는 '거북'을 구워 먹겠다는 협박을 통해 '거북'이 '머리'를 내밀 것을 강요하고 있다. ⑤ 화자는 '거북아'를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11.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⑤ ㉠은 가을의 시든 풀로 화자는 영화롭던 고려의 궁궐이 있던 자리, 즉 '만월대'가 시든 풀로 덮여 있는 것을 보며 무상감에 젖고 있다. ㉡은 목동의 피리 소리로 고려의 오백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목동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들으며 무상감에 젖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인생무상을 느끼게 할 뿐 자연에 대한 화자의 흥취가 아닌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한 무상감을 들게 한다. ② ㉠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③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바람과 관련이 없다. ④ ㉡은 화자에게 무상감을 주는 소재이며 화자의 정서는 일관되고 있으므로 ㉡이 화자의 정서를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12.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나)에서 '백설'은 고려의 유신을 의미한다. 고려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은 '백설'이 녹아 없어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름'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가)는 가락국의 건국 신화에서 수로왕의 출현을 기원한 노래라고 하였으므로, '머리'는 우두머리 즉 수로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내밀어라'는 왕이 출현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석양'은 저물녘의 시간적 배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을에 가는 고려 왕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나)에서 화자는 '석양'에 홀로 있어 갈 곳을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가 고려 왕조의 신화로 고려가 가을에 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④ '홍망'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의미하며 '유수'는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고 생기는 일이 물의 흐름, 즉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다)의 '객'은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고려왕조의 몰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백 년 도읍지를~(원천석), 선인교 나린 물이~(정도전) - 수능특강 38p 관련>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설(白雪)이 족자진 팔에 구루미 머호레라
반가운 ㉠ 매화(梅花)난 어니 곳에 띄여논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흐노라

- 이색 -

(나)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호되 인결(人傑)은 간 되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年月)이 꿈이런가 흐노라

- 길재 -

(다)

선인교(仙人橋)* 나린 ㉡ 물이 자하동(紫霞洞)에 흘러드러
반천 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희야 고국 흥망(故國興亡)을 물어 무슨 흐리오

- 정도전 -

* 선인교: 개성의 자하동에 있는 다리.

* 자하동: 개성의 송악산 기슭에 있는 고을 이름으로, 송악산은 고려의 궁터인 반월대가 있음.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인화된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깨끗함'의 속성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다.
- ③ ㉠과 ㉡은 모두 '탈속성'의 특성을 통해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 ④ ㉠은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는 소재이고, ㉡은 공간의 변화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이고, ㉡은 '유동성'의 이미지를 지닌 소재이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여말 선조의 지식인들은 각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색, 정몽주, 길재로 이어지는 절의파는 새 왕조의 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은둔의 길을 선택했다. 반면에 정도전, 권근과 같은 현실주의적 사대부들은 신 왕조 건설에 큰 활약을 하였다. 이로 인해 여말 선조의 시조는 주로 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를 노래한 '절의가'와 고려 왕조 몰락 이후의 감회를 읊은 '회고가'로 남아 있다. 전자가 고려 왕에 대한 충절, 왕조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반면, 후자는 주로 번성했던 과거와 몰락한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낸다.

- ① (가)의 '석양'은 시간적 배경을 통해 몰락의 이미지를, (나)의 '꿈'은 일시성의 특성을 통해 허망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구름' 낀 골짜기에서 '반가운 매화'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고려 왕조의 운명을 되돌리기 어려움을 암시하는군.
- ③ (가)의 '갈 곳 몰라 흐노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정하지 못한 지식인의 고민을, (다)의 '물어 무슨 흐리오'는 왕조의 몰락을 수용하는 현실주의적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는 '오백 년'을 '태평연월'의 관점에서 회고함으로써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다)는 '반천 년 왕업'을 '흥망'의 관점에서 회고함으로써 고려왕조 몰락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산천'의 영원성과 '인결'의 유한성을 대비하여 역사의 무상감을, (다)는 '자하동'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번성과 '물소리'로 남은 현재의 몰락을 대비하여 역사의 무상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오백 년 도움지름~(길재) / 선인교 나린 물어~(정도전)

[13~15]

13.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

④ (가)~(다)의 종장은 모두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종장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의 종장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가), (다)에서는 대구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의 종장은 가상의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 (나)는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다)에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14.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⑤ ㉠은 지조있는 '고려 유신'의 의미를, ㉡은 '홀너드러'와 연결되어 '유동성'의 이미지를 통해 '고려 왕조의 몰락'이라는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이입한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 어렵다. ② ㉠과 ㉡은 모두 '깨끗함'의 속성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③ ㉠은 고려 유신인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상징물, ㉡은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홍취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 ④ ㉠은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는 소재라기보다 '고려 유신'을 상징하는 소재로, ㉡은 공간의 변화를 상징하는 소재라기보다 고려 왕조를 회상하게 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③ (가)의 '갈 곳 몰라 흐노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정치적 입지를 정하지 못한 지식인의 고민이라기보다, 중장에서 '매화'로 표상되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의 '물어 무슨 흐리오'는 몰락한 고려를 묻는 것이 부질없는 일임을 드러냄으로써 고려의 몰락을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적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석양'은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몰락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나)의 '꿈'은 '일시성'과 '실체 없음'의 성격을 활용하여 화자의 허망함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구름'이 험한 골짜기에서 '매화'를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화자는 새 왕조의 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은둔의 길을 선택한 절의파로서의 작가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는 '오백 년'을 '태평연월'로, (다)는 '반천 년 왕업'을 '홍망'의 관점에서 회고함으로써,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킨 작가와 신왕조 건설에 크게 활약한 작가 간에 고려 멸망을 회고하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나)는 '산천'의 영원성과 '인결'의 유한성을 대비하여, (다)는 '선인교'와 '자하동'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번성과 '물소리'로 남은 현재의 몰락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꽃샘바람(이규보) - 수능특강 42p 관련>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꽃 필 때 미친바람도 많으니	花時多顛風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 하네	人導是妬花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天工放紅紫
①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如剪綺與羅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既自費功力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愛惜固應多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豈反妬其豔
도리어 미친바람 보냈겠는가	而遣顛風加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風若矯天令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天豈不罪耶
②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此理必不爾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我導人言訛
③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鼓舞風所職
만물에 은택 입히니 사사로움 없으리라	被物無私阿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惜花若停簾
④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其奈生長何
꽃 피는 것도 좋지만	花開雖可賞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花落亦何嗟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開落揚自然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有實必代華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莫問天機密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把杯且高歌

- 이규보, 「꽃샘바람[妬花風]」 -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대결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대상이 가진 불변성으로 말미암은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 ⑤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하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연물들을 통해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꽃의 아름다움을 시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은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삼라만상의 조화를 바람의 능력이 부족하여 조물주에게 죄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꽃의 생장 과정에 바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규보는 백성이 겪는 고통과 현실을 직시하며 백성들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는 작품 세계를 가진 작가이다. 이러한 작품 성향은 시인이 가진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생명에 대한 존중 정신이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규보는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쉬운 쥐, 이, 파리까지도 애정 어린 시각에서 관찰을 하고, 이를 통해 주체 의식을 형상화하였다.

- ①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백성들의 현실을 진솔하게 보여 주고 있군.
- ② '꽃'과 '바람'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생명 현상의 근원적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자연의 순환적 현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인간의 삶과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④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 현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을 통해 자연의 순리와 우주의 이치를 보여 주고 있군.

꽃샘바람(이규보)

[16~18]

16.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효과에 대해 이해한다.

③ ‘꽃 피는 것도 좋지만 /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에서는 설의법을 통해 바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명암의 대비가 나타난 부분이 없고, 대상과의 대결 의식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② 작품에서는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바람 불지 않는다면 등의 가정적인 상황은 보여 주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상적 정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작품에서는 반어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에서는 비유적(직유)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통념, 즉 보통 꽃을 시키해서 부는 바람을 바람의 본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통해 기존의 통념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⑤ 작품 속에서는 상대방인 조물주와의 대화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④ ㉠은 조물주가 바람에게 직책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바람이 부족하여 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꽃과 바람의 대비를 통해 꽃 필 때 부는 바람을 ‘미친바람’이라고 말하는 자연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고전시가에서 비단은 아름다움을 빗대어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 ㉠에서도 꽃의 아름다움을 시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③ ㉠의 ‘이런 법’은 조물주가 미친바람을 보낸 이유가 꽃을 시키하여 보내지 않았음을 말한다. 화자는 ‘반드시’와 부정어를 사용하여 조물주가 꽃을 시키하여 보내지 않았다는 확신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에서는 꽃이 영원히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바람을 들고 있다.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일에서 바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18.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보기>는 이규보가 자연 현상 또는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 작품의 경우 꽃샘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성장소멸의 이치, 자연의 순리와 우주의 이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연의 순리와 우주의 이치를 보여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 부정적인 대상은 꽃샘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꽃샘바람이 꽃을 시키해서 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부는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작품에서는 의인법을 통해 꽃과 바람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 작품에서는 모든 생명 현상은 성장, 소멸한다는 자연계의 지극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 현상의 근원적 차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작품에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성장, 소멸의 이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자연과 인간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작품에서는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 현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작품에서 인간은 자연 현상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동동(작자 미상) - 수능특강 45p 관련>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06 고3 평가원>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거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으란 곰빅에 받좁고 복(福)으란 림빅에 받좁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날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흐올로 널서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느딕 브롤 즈슬 디너 나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요쇼셔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문왕과 후비: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19.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 해석될 수 있었다.

20.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줄가 대평성터'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줄가 대평성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21.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릿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동등(작자 미상) <17-06 고3 평가원>

[19~21]

19.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 ④ (가)의 3문단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에서 하층 노래가 상층 노래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문단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회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악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는 부분과 3문단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와,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0. [출제 의도] 작품의 종합적 이해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덧붙인 내용으로 임에 대한 송축(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서사>, <정월령>, <이월령>, <삼월령> 등에 반복되는 형식적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다)의 ‘위 증주가 대평성덕’는 후렴구로 노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의 예로 볼 수 없다.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주가 대평성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21.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 ④ [A]의 제1행과 제2행은 물수리 한 쌍이 모래톱에서 우는 정경을 제시한 것으로 시적 대상이 변화한 것이 아니며 대칭 구조로 볼 수도 없다. (다)의 제1연과 제2연도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4문단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를 통해 [A]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정월령>은 정월의 냇물과 비교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움과 관련된, (나)의 ‘만춘 들꽃’은 타인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지을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하고 즐거운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다)에서는 임과 시적 화자 간의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서 [A]를 두고 ‘부부 간의 화락과 공경’, ‘풍속 교화의 시초’라는 평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A]가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이월령>에서 ‘높이 켜 등불에 빗대어 임이 모두가 우러러 볼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으며,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다.

<동동(작자 미상) - 수능특강 45p 관련>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03 고3 서울사>

(가)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흔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느뇨

㉢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김광균, 「설야」 -

(나)

어이할까나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제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돌아나
또 한번 나르 에워싸는데

㉣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나려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나려

신라가시내의 숨결과 같은
신라가시내의 머리털 같은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나려

올해도 내 앞에 훑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훑날리는데……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 뽀뽀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 서정주, 「신록」 -

(다)

㉥ 正月(정월)스 나뒹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누룻 가운데 나곤 몸하 호올로 녀서
아으 動動다리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불 다호라
㉦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호 아으 滿春(만춘) 돌릿고지여
느미 브롤 즈슬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몬 넷 나롤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외적 상황을 묘사한 다음 화자의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시상의 바탕에 깔려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탐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세상의 여러 사물 중에서 불꽃은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영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지속되는 불꽃 앞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려우며, 몽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준다.

- ① 몽상이 지나는 심리적 특성을 참고한다면, 마음 허공에 켜진 등불은 시적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불꽃을 지속시키는 시간적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화자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등불은 연속되는 삶의 흐름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빛을 비추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불꽃의 특성을 참고한다면, 마음에 켜진 등불로 인해 시적 화자의 고립감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불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불을 켜므로써 시적 화자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불꽃이 지나는 몽상적 이미지를 고려해 볼 때, 마음에 등불을 켜는 행위는 시적 화자가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4. (나)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형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의태어의 반복 사용을 통해 시적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 ⑤ 시구의 반복과 변주(變奏)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5. (다)의 ㉠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땀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땀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이 설움도 풀리지
동지 설탈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 김동환, 「강이 풀리면」 -

- ① ㉠과 <보기>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과 <보기> 모두 강물이 얼었다 풀리는 상황과 시적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 ③ ㉠에는 <보기>와 달리 대립된 욕망으로 인한 시적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 ④ ㉠과 달리 <보기>에는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과 달리 <보기>에서는 연쇄적 시상 전개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심정이 강조되고 있다.

26. ㉡을 활용하여 시를 창작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킨 것은?

< 보 기 >

- ㉡의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살린다.
- ㉡의 '꽃고리새'와 시적 기능이 유사한 시어를 포함시킨다.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① 작년 오늘 이 문 안에서
그대와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빛났지
복사꽃은 여전히 봄바람에 미소 짓는데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구나
- ② 내 살던 곳은 서쪽에서 또 서쪽
해마다 앵무새 울었네
지금은 앵무새 우는 곳에 살지 않지만
앵무새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네
- ③ 연못에는 난초 향기 가득한데
꺾은들 누구에게 보내나
마음은 간절한데 알아주는 이 없어
슬픔 속에 늙어가는구나
- ④ 약속을 해놓고 님은 어찌 안 오시나
뜨락의 매화꽃은 다 저 가는데
갑자기 가지 위의 까치소리 듣고는
부질없이 거울 앞에 눈썹 그리네
- ⑤ 지금 사람은 옛 달을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달은 옛사람들을 비추었지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함께 달을 보고 있네

27.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대상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 대립되는 시어를 병치하고 있다.
- ③ c: 시적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 ④ d: 비교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e: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등등(작자 미상) <06-03 고3 서울시>

[22~27]

22.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③ <나>에는 꽃이 지고 녹음이 돋는 계절이 '또 한번' 돌아왔다고 하여 끊임없이 순환되는 자연 질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배경으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회가 표현되어 있다. (다)는 월령체 형식의 노래로, 월을 단위로 순환되는 자연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시적 화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23. [출제 의도]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⑤ <보기>를 참고하면 불꽃은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 등불은 불꽃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불꽃이 지니는 몽상적 이미지와 관련된다. 작품의 흐름을 보면 시적 화자는 한밤 중 내리는 눈을 보며 자신만의 '몽상'(생각)에 빠져 들어 '잃어버린 추억'을 되살리게 된다. 이로 미루어 시적 화자가 마음에 켜는 등불은 시적 화자가 마음 속, 즉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① '어이할까나'를 의문형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마음속 깊은 정회를 드러낸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어이할까나', '아-', '어라' 등의 표현에서 시적 화자는 마음 속 깊은 정회를 드러내고 있다. ③ '떨떨떨 떨떨떨'에서 의태어가 반복 사용되어 꽃잎의 떨어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붉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꽃잎'에 대한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⑤ 1연과 마지막 연에서 시구가 반복·변주되고 있다.

25. [출제 의도] 관련되는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③ <보기>의 시적 화자는 '님'을 만나고 싶은데 '님'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대립된 욕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④ (다)의 ㉠에서 시적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만 있지만 <보기>의 시적 화자는 강가에 나가 '님'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보기>에는 '님'이라는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 행위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출제 의도] 조건에 맞게 시를 창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① ①의 시적 화자는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구나'라며 떠난 '그대'를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의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유사하다. '복사꽃'은 '그대'와 대조되면서 '그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 '꽃고리새'와 시적 기능이 유사하다. 또 '그대와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빛났던 작년과 '복사꽃은 여전'하지만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는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는 시적 화자가 그리운 대상(내 살던 곳)을 떠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다르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27. [출제 의도] 시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② ㉠은 내리는 눈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서 서러운 몸짓을 하는 대상은 '꽃잎'인데 이는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진 시적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것이다. ㉣에서는 우는 '피꼬리'와 그렇지 못한 시적 화자가 비교되면서 시적 화자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에서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닌 대상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의 경우 대립된 시어의 병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동동(작자 미상) - 수능특강 45p 관련, 임이 오매(작자 미상) - 수특 52p 관련>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3A 고2 부산사>

(가)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
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
에 쥐고 곰비넙비 넙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대를
가리지 말고 위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엿말 하려 하고 결눈으
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껌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뜰
게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
어라.

- 작자 미상 -

(나)

정월 넷물은 아으 열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정월령>

오월 오일에 아으 단옷날 아침 약(藥)은
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웁니다. / 아으 동동다리

<오월령>

유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린 빗 갈구나.
돌아보실 입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 아으 동동다리

<유월령>

칠월 보름에 아으 백중날 음식을 차려두고
임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 아으 동동다리

<칠월령>

시월에 아으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갈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어라. / 아으 동동다리

<시월령>

십일월 봉당자리*에 아으 흘적삼 덮고 누워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입을 여의고 각각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령>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 봉당자리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흠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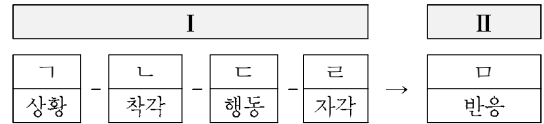
2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노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처한 참담한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가 부각되어 있다.

29. <보기>에 근거하여 (가)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작품 속에 화자의 상이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
나는 경우가 있다. 즉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행동하는 모습(Ⅰ)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뒤에 보이는 모습(Ⅱ)이 그것이다.



- ① ㄱ : '님이~바라보니'는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② ㄴ : '거머희뜩~님이로구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착각이다.
- ③ ㄷ : '버선을~건너가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취한 행동이다.
- ④ ㄹ : '정(情)엿말~속였구나'는 사랑하는 임에게 속았음을 자각하는 부분이다.
- ⑤ ㅁ : '모쳐라~뻔하였어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는 반응이다.

30.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령>의 '넷물'과 <십일월령>의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② <오월령>의 '바치웁니다'와 <칠월령>의 '비웁니다'에는 정성과 기원이 담겨 있다.
- ③ <유월령>의 '따르겠습니다'와 <칠월령>의 '함께 지내고자'에는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④ <유월령>의 '빗'과 <시월령>의 '보리수나무'는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한 사물이다.
- ⑤ <시월령>의 '없어라'와 <십일월령>의 '각각 살아가는구나'에는 고독하게 지내는 삶이 드러나 있다.

동등(작자 미상) <13-3A 고2 부산시>

[28~30]

28. [출제 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 ① (가)의 화자는 아직 입을 만나지 못했지만, 입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나)의 화자도 자신을 떠난 입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입의 부재로 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9. [출제 의도] 근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 ④ 르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했음을 자각하는 부분이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⑤ 르은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였다는 실상을 확인하고, 밤이었으니 다행이지 만약 낮이었다면 남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애써 합리화하고 있다.

30. [출제 의도] 작품 내용 이해하기

- ① <정월령>의 봄을 맞이하여 녹으려는 '냇물'은 세상에 태어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으로 인해 얼어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십일월령>의 '봉당자리'는 추운 계절에 홀적삼을 덮고 누운 차가운 공간으로 외로워진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빗'은 벼랑에 버려진 것이고, '보리수 나무'는 꺾여 버려진 것으로 둘 다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물이다. ⑤ '없어라'는 임에게 버림받아 함께 지낼 사람이 없는, '각각 살아가는구나'는 님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화자의 고독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 수능특강 47p 관련>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6A 고3 평가원>

(가)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나)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다)

- [A]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寂寞荒田側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繁花壓柔枝
- [B] 향기는 매우(梅雨)* 지나 희미해지고 香經梅雨歇
그림자는 맥풍(麥風)* 맞아 기우뎡하네. 影帶麥風歛
- [C]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 車馬誰見賞
벌이나 나비들만 엿볼 따름이네. 蜂蝶徒相窺
- [D]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自慚生地賤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堪恨人棄遺

- 최치원, 「축규화(蜀葵花)*」 -

- * 낙목한천: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의 추운 하늘.
* 은한: 은하수.
* 자규: 두견새.
* 매우: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
* 맥풍: 보리가 익어 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
* 축규화: 접시꽃.

31.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32.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나)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가)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최치원의 「축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축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⑤ [A]에서는 '축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축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15-6A 고3 평가원>

[31~33]

3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③ (가)는 '국화(菊花)', '낙목한천(落木寒天)'의 시어를 통해 시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이화(梨花)', '일지춘심(一枝春心)'의 시어를 통해 시의 계절적 배경으로서 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는 '매우(梅雨)'와 '백풍(麥風)'의 시어를 통해 초여름 즈음의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의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와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 자규(子規)가 나타나지만 청각적 심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가)와 (다)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의 종장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 하여-'에 직유법이 나타나 있으나, (가)와 (다)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의 종장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으나, (나)와 (다)에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32. [출제 의도] 작품의 종합적 이해

- ③ (가)에서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은 낙목한천과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꽃을 피우기 좋은 조건을 나타내는 배경이고, (나)에서 은한이 기우는 삼경은 봄밤의 애상적 분위기를 느끼기에 적합한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가)와 (나)에는 화자와 대상 간의 이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다는 것은 다른 꽃들이 삼월동풍(三月東風)에나 피는 것과 대조되어 국화의 외롭고 고고한 속성을 드러낸다. ② 밝은 달 빛을 받는 '이화'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애상적'인 것으로, 이는 종장에 오면서 전통적으로 슬픔과 한(恨)을 표상하는 자규(소쩍새, 점동새)를 매개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④ '오상고절(傲霜孤節)'은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의 굳은 절개를 드러내는 말이고, 다정(多情)은 '정이 많음'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화자의 속성은 초·중장을 통해 심화되는 애상적 정취에 화자가 흠뻑 취하게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오상고절은 긍정적 가치를 지닌 것이고, 이를 지닌 것이 '너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고, 다정(多情)한 화자가 봄밤의 애상적 정취에 '잠 못 들어' 한다는 것은 봄밤의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33.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② <보기>에 따르면 '축규화'는 출신상의 한계로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최치원의 처지를 표현한 작품이고, 이에 근거해 [B]를 해석해 보면 '향기'와 '그림자'는 최치원의 재능을 표상하는 것인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기우뚱'해진다는 것은 곧 최치원의 재능이 쓰임을 받지 못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B]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쓸쓸하게 향량한 발'은 출신상의 한계를, '탐스러운 꽃'은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A]에서 이들은 의미상 서로 대비되어 있다. ③ '수레나 말 탄 사람'은 화자를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별이나 나비들'은 늘 꽃과 함께 있는 평범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전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후자와 같이 지내는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다. ④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에서 출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탐스러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에서 축규화에 대한 외양 묘사가, '부끄럽고', '한스럽네'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내면 서술이 나타나 있다.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 수능특강 47p 관련>

[34~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5-06 고3 평가원>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다정가(多情歌)」 -

(나)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節節)
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애어 사창(紗窓) 여원 잠을 ㉠살뜰
히도 깨우는코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다)

옛 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되, 향기
가 형태 없기로 난(蘭)을 그렸던 것이다. 아리따운 여인
의 빙옥(氷玉) 같은 심장을 그리려 하되, 형태 없으므로
매화(梅花)를 그렸던 것이다. 붓에 먹을 듬뿍 찍어 한 폭
대(竹)를 그리면 늠름한 장부, 불굴의 기개가 서릿발 같
고, 다시 붓을 바꾸어 한 폭을 그리면 소슬(蕭瑟)한 바람
이 상강(湘江)의 냇*을 실어 오는 듯했다. 갈대를 그리면
가을이 오고, 돌을 그리면 고박(古樸)한 음향이 그윽하니,
신기(神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기에 예술인 것이다.

[A] 종이 위에 그린 풀잎에서 어떻게 향기를 맡으며, 먹으로 그
린 들에서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심안(心眼)
이다. 문심(文心)과 문정(文情)이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백아(伯牙)가 있고, 또 종자기(鍾子期)*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뜻을 알면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결코 독자(讀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글을 잘 읽는 사람 또한 작자(作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
에 작자와 독자 사이에 애뜻한 사랑이 맺어진다.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시대(時代)의 공민(共閔)이요, 사회(社會)의 공분
(共憤)이요, 인생(人生)의 공명(共鳴)인 것이다.

문인(文人)들이 흔히 대단할 것도 없는 신변잡사(身邊雜事)
를 즐겨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편모(片貌)와 생활의
정회(情懷)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속악(俗惡)한 시정잡사(市井雜事)도 때로는 꺼리지 않고 쓰
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생의 모순과 사회의 부조리를 여
기서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요 내 프리즘을 통하여 재
생된 자연인 까닭에 새롭고, 자신은 주관적인 자신이 아니요
응시(凝視)해서 얻은 객관적인 자신일 때 하나의 인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감정은 여과된 감정이야말로 아름답고, 사색은 발효된 사색이
라야 정(情)이 서리나니, 여기서 비로소 사소하고 잡다한 모든
것이 모두 다 글이 되는 것이다.

의지가 강렬한 남자는 과묵한 속에 정열이 넘치고, 사랑이

깊은 여인은 밤새도록 하소연하던 사연도 만나서는 말이 적으
니, 진실하고 깊이 있는 문장이 장황하고 산만할 수가 없다.
사건의부진(辭盡意不盡)*의 여운이 여기 있는 것이다.

깊은 못 위에 연꽃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바닥에 찬
물과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물 밑의 흙과 같이 그림자 밑
에 더 넓은 바닥이 있어 글의 배경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음미
(吟味)에 음미를 거듭할 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고는 멀수록
맑은 향기가 은은히 퍼지며, 한 송이 뚜렷한 연꽃이 다시 우아
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이런 글이 쓰고 싶고, 이런 글이 읽고 싶다.

- 윤오영,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

* 상강의 냇: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의 냇.

* 백아와 종자기: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고사의 주인공들.

* 사건의부진: 말은 다 하였으나 말하고 싶은 뜻은 아직 그대로 남
아 있음.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화자의 독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②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③ (나), (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35. (가)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이 나머지
와 다른 것은?

- ① '이화', '월백'은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② '이화', '월백', '은한'은 서로 어울려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 ③ '삼경'은 시간 배경이 되는 동시에 '은한'의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한다.
- ④ '일지춘심'은 '이화'나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 ⑤ '다정'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36. (가)의 '자규'와 (나)의 '귀뚜리', 그 어느 것의 시적 기능으로
도 볼 수 없는 것은?

- ① 화자의 정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다.
- ② 소리로서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③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 ④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 ⑤ 작품 내의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개입한다.

37. ㉠과 ㉡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에는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귀뚜리'를 연민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귀뚜리'를 야속해 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귀뚜리'를 불신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귀뚜리'를 동정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38. (다)를 읽고 글의 취지에 근거하여 모두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책을 읽고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글을 썼을지에 대해 토론한다.
- ② 각자 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자신이 글로써 드러내고자 한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 ③ 널리 알려진 작품을 쓴 소설가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 ④ 일상적인 소재를 즐겨 사용하는 시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알아본다.
- ⑤ 문헌 조사를 통해, 옛 문인들이 즐겨 선택한 소재와 오늘날의 작가가 선호하는 소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39. 다음은 <주상탄금도(舟上彈琴圖)>라는 그림이다. [A]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1점]



- ① 대나무 가지들이 배를 향해 뻗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군.
- ② 강과 산과 하늘의 경계를 두지 않은 독특한 필법(筆法)을 구사하고 있군.
- ③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그려 탈속적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 있군.
- ④ 인물 뒤로, 가는 선의 폭포와 새 한 마리를 그려 배경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군.
- ⑤ 배와 인물을 중심에 두고 대나무와 폭포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군.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05-06 고3 평가원>

[34~39]

34. 창의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③ 봄날 밤의 애상을 노래하고 있는 (가)와 독수공방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하고 있는 (나)는 혼자 있는 화자의 모습을 쉽게 떠오르게 한다. (나)는 '귀뚜리'를 반복함으로써 외로운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고, (다)는 '~싶다.'의 형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세 작품은 모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느낀 감성을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 '귀뚜리'나 (다)의 제재들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은 아니다.

35. 비판적 사고(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의 파악)

① ①은 외재적 접근 방법인 데 반해 그 외의 답지들은 작품만을 가지고 충실하게 접근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작품 속에 나오는 '이화', '월백' 등의 소재를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로 연결짓는 것은 작품 외에 시인의 생각까지 고려한 접근 방법이 된다.

36. 추론적 사고(소재의 시적 기능 추리)

④ '자귀'와 '귀뚜리'가 지니고 있는 시적 기능은 화자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소재들은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7.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

③ ㉓는 님을 그리워하며 겨우 든 잠을 깨우는 귀뚜리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표현이고, ㉔는 자기 자신에게 귀뚜리에 대해 생겨난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내 버리고 마음을 진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38. 비판적 사고(글의 취지 파악)

⑤ 이 글의 핵심은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선지들 중에서 '소통'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 ㉓는 옛날의 작가와 오늘날의 작가가 사용하는 소재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작가와 독자의 소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9. 창의적 사고(인접 영역에의 적용 및 감상)

③ A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모양이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다. 선비의 맑은 향기를 '난'으로, 여인의 빙옥 같은 심정을 '매화'로, 장부의 기개를 '대[竹]'로 나타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탈속의 정신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제시했다는 ㉓의 내용이 이와 유사한 관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시니 흐르는 골에~(신화문), 어이 못 오던다~ - 수능특강 47p, 225p 관련>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니 흐르는 ㉠골에 바회 지혀 초당(草堂) 삼고
달 아리 밧츨 갈고 구름 속에 누어시니
건곤(乾坤)이 날드려 널으기를 함괴 늙즈 흐더라

- 신화문 -

(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보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

- 윤선도 -

(다)

어이 못 오던다 무슴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우회 무쇠로 ㉢성(城)을 밧고 성 안헤 담 밧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노코 두지* 안헤 케(櫃)
를 노코 케 안헤 너를 결박(結縛)혀어 노코 쌍(雙)비목 외걸새
에 용(龍)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줌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흔 둘이 설흔 놀이여너 날 보라 올 홀리 없스라

- 작자 미상 -

* 두지 :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

4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나)와 달리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가정적 상황을 통해 대상의 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의 좌절감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평시조는 경건한 삶을 지향했던 조선 시대 선비 정신을 담 아내기에 적절하였다. 특히 (가)와 (나)의 경우처럼, 세속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선비 정신을 토대로 형성된 '강호가도' 계열의 시조는 정제된 형식을 통해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사대부의 삶을 보여 주기에 적합하였다. 한편 (다)와 같은 사설시조는 형식적 측면에서 평시조와 차이를 보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남녀 간의 애정이나 삶의 애환 등을 진솔하게 노래하였다.

- ① (가)는 '초당'을 통해, (나)는 '먼 뫼'를 통해 강호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다)의 중장이 (가), (나)에 비해 상당히 긴 것을 통해 사설시조가 형식적 측면에서 평시조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가)는 '구름 속에 누어' 있는 모습을 통해, (나)의 '잔 들고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사대부의 삶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몰내 도하호노라'를 통해 '님'에 대한 화자의 '반가움'을, (다)는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를 통해 '너'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진솔하게 보여 주고 있군.
- ⑤ (가)는 '바회 지혀' 삼은 '초당'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선비 정신을, (다)는 '두지 안'의 '케'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군.

시나 흐르는 끝애~(신희문) / 어이 못 오면다~(작자 미상)

[40~42]

40.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

②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나)의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
흐랴'는 설의법을 활용하여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는 음성 상징어 '수기수기'를 활용하여 '궤' 안에 갇혀 있는 '너'의 상
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표현법이 나타나지 않
는다. ③ (나)는 '그리던 암'과 '먼 뵈'를 대비하여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
나, (다)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 표현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는 '못 오면다', '밖고', '노코' 등의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 나타나
고 있으나, (가), (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다)는 가정적 상황을 활용하여 대상의 처
지를 구체화하였다기보다 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오지 않는 입에 대한 화자의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가), (나)는 가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41.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

① ㉠은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에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에는 화자의 좌절감이 드러나 있지 않기에 '피흘'을 좌절감을 완화시
켜 주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③ ㉢은 입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방해하는 상상적 공간이다. ④ ㉣, ㉤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은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공간이나, ㉦은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2.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④ (나)의 '문내 도흐하노라'는 '님'에 대한 화자의 '반가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먼 뵈'
를 바라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 '님'과 비교한 것이다. (다)의 '네 어
이 그리 아니 오면다'는 '너'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진솔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조당'을 통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먼 뵈'를 통해 자연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다)의 중장이 (가), (나)에 비해 상당히 길어진 것은 사실시조가 형식적 측면에서 정제
된 평시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구름 속에 누어' 있는 화자
와 (나)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뵈'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은 자연에서 유희자적하
는 사대부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의 '바회 지혀' 삼은 '조당'은 부귀영화와 같은
세속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선비 정신을, (다)의 '두지 안'의 '궤'는 입과의
단절감을 통해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뫼뻬를 가려 것가~(홍랑) - 수능특강 47p 관련>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1학년도 대수능>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트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줄가 대평성대(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트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줄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
 위 증줄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눈
 가시는 듯 도서 오쇼서 나눈
 위 증줄가 대평성대(太平盛代)

- 「가시리」 -

(나)

뫼뻬를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 창(窓)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나가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 홍랑의 시조 -

(다)

바람도 쉬어 님은 ㉠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님은 고개
 산(山)진이 수(水)진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매 쉬어 님은 고
 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개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 작자 미상의 시조 -

(라)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 은하수(銀河水) 막혔
 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
 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手)*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쉼다.
 세상(世上)에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 홍안(紅顔)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

* 약수(弱手):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전설상의 강 이름

43. (가)~(라)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직한 것은?

- ① 이별에 따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덕을 송축(頌祝)하고 있다.
- ③ 민중의 적극적인 생활 의지를 담고 있다.
- ④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의탁해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44. (가)와 (라)가 동일한 화자의 노래라고 가정할 경우, (가)에
 서 (라)로 상황이 변한 데 따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애초에는 망설였으나, 역시 보내 주길 잘한 것 같다.
- ② 임을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그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
- ③ 처음에는 내가 임을 버렸는데, 이제는 임이 나를 버리는구나.
- ④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헤어질 때 왜 그렇게 애달파했을까?
- ⑤ 붙잡고 싶었던 임을 보내 주었는데, 어찌하여 소식조차 없을까?

45. (㉠)에 들어갈 알맞은 구절은? [1.8 점]

-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 ② 선흐면 아니 올세라
- ③ 어마님ㄴ티 꾀시리 업세라
- ④ 꾀시랏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 ⑤ 유덕호신 님 여히와지이다

46. (나)의 시어 가운데 <보기>의 밑줄 친 구절에 대응할 수 있
 는 것은?

< 보 기 >

안녕, 친구야.

네가 전학 간 지도 일 년이 지났구나. 그곳에서 좋은 친구
 들 만나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 있단다. 보고 싶구나, 친구야. 내 마
 음을 편지와 함께 이 테이프에 담아 보낸다. 테이프에 녹음
 한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지. 다가오
 는 겨울 방학에는 너를 만나러 갈 계획이다. 너를 다시 만날
 날이 무척 기다려지는구나.

- ① 뫼뻬들 ② 님 ③ 창(窓) ④ 뫼 ⑤ 밤비

47. ㉠ ~ ㉥ 중, ㉠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어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뫼뵐뵐 가려 켜가~(뫼랑) <01학년도 대수능>

[43~47]

43.

- ① (가)는 사랑하는 임이 떠나려 하자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나)는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다)는 이별한 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라)는 곁에 없는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네 작품 모두 이별에 따른 시적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44.

- ⑤ (가)는 임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간절히 붙잡고 싶었으나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선선히 떠나보내면서 임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라)는 이미 임과 이별하고 나서 소식조차 없는 임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가)에서 (라)로 상황이 변하고, (가)와 (라)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임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선히 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태도가 드러난 ⑤가 가장 적절하다.

45.

- ② ㉠의 바로 앞부분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의 바로 뒷부분은 ‘떠나보내기 싫은 임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니 가자마자 곧 돌아오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을 전후하여 화자의 심리가 돌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임을 붙잡지 못한 이유가 들어가야 임을 단순히 떠나보내겠다는 뒷부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46.

- ① <보기>에서 밑줄친 ‘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는 글쓴이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소재이다. (나)는 화자가 임에게 바치는 지순한 사랑을 뫼뵐뵐로 구상화시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임에게 바치는 순정만은 뫼뵐뵐처럼 항상 임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서 시적 화자가 자신이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소재는 ‘뫼뵐뵐’이다.

47.

- ① (다)에서 ‘고개’는 바람과 구름은 물론이고 매들도 쉬어 넘는 고개로서, 임과 나(시적 화자)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다. (라)에서 ㉠ ‘은하수’도 견우와 직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가 유사하다.

<뿔뿔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뿔뿔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⑦ 자시는 창(窓)밖의 십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넛곳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랑 -

(나)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닛
도 일코 농총도 근코 뚫대도 갓고 치도 빠지고 트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계 즈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몬 디 사면
이 거머어득 저못 천지 적막 가치노을 췌는디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① 엇그제 님 여훤 내 안하야 엇다가 ㄹ을훤리오

- 작자 미상 -

(다)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궤치 알피오라
뛰운 님 오머는 쏘리를 뽀해 치며 치췌락 느리췌락 반겨서
내뚫고 고온 님 오머는 뿔뿔을 버둥버둥 므로락 나으락 캥캥
즈저서 도라가게 훤다.

췌뽀가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있시랴

작자 미상 -

4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문장을 도치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구체적 상황을 열거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게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상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열거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4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의 책임이 화자에게 있음을, ㉡은 이별의 책임이 '님'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은 '님'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했던 '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은 '님'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님'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은 '님'과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님'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50.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정서는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느낄 수 감정 중의 하나이며 애절함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다)는 모두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가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어휘와 방식은 같지 않다. (가)는 자신을 대신할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나)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상을 통해, (다)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대상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의 '뿔뿔들'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는 대상으로,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를 대신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겠군.
- ② (나)의 '도사공'은 임과 헤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으로, 화자는 '도사공'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겠군.
- ③ (다)의 '개'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화자는 '개'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겠군.
- ④ (가)의 '밤비'와 (다)의 '췌뽀'는 임과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군.
- ⑤ (가)~(다)의 '님'은 모두 화자와 이별한 대상으로,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뿔버들 같이 깃가~(홍량) /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작자 미상)

[48~50]

48.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④ (나)에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가)에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초구의 '님의손터'는 '임에게'로 '보내노라'의 앞에 사용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② (나)는 '까투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열거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는 '회회'라는 의태어와 '강강'하는 의성어를 활용하여 대상에게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나)는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열거하고 있고, (다)는 개의 행동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49. [출제 의도] 시어에 담긴 화자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⑤ ㉠에서 화자는 임에게 '뿔버들'을 가까이 두고 봐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 자신이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은 임과 헤어진 아픔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임과 헤어진 절박한 상황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에서는 이별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② ㉠에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나 ㉡에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③ ㉠은 이별했던 '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다. ㉡은 '님'과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나타냄으로써 '님'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과 ㉡에는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읽을 수는 있으나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나 만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찾을 수는 없다.

50.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① (가)의 화자는 임에게 '뿔버들'을 보내고 나서 창밖에 십어 두고 자신처럼 보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뿔버들'은 화자를 대신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다)의 '도사공'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지, 임과 헤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다)의 '개'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의 화자는 열 마리 넘게 기르는 개 중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임을 박대하는 개를 미워하고 있다. 즉 화자가 그 개를 미워하는 행위를 통해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밤비'는 '뿔버들'에 새 잎이 나게 하는 소재로 이별의 상황에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의 '선밤'은 개에게 주는 먹이로, 아무리 많아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은 개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이다. 그러므로 절망적 이별에 처한 화자의 상황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다)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 아니라 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의 화자는 자기 집에 오는 임을 보고 쫓는 개를 미워하는 것으로 볼 때, 임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홍(윤선도) - 수능특강 49p 관련>

[51~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7-09 고3 평가원>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이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올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짙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 짝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쫄면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뎛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으랴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으랴

- 윤선도, 「만홍(漫興)」 -

- * 하얗: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릴: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뎛더라: 약았더라.

5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B]

52.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53.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 보 기 >

윤선도는 '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현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4.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55.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테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미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56.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57.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④ '먼 뫼'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만홍(윤선도) <07-09 고3 평가원>

[51~57]

51.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의 특성 파악)

- ① (가)에서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이의 초월적 지향이 첫 연과 끝 연에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에 비해 현실의 고통에 묶여 있는 화자의 상태를 첫 연과 끝 연에서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 시킴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둘 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는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는 호소적 어조가, (나)는 탄식적 어조가, (다)는 감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52.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

- ④ [B]의 화자는 새처럼 자유롭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묶여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에 좌절하기보다는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A]의 화자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자각하고 이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B]의 화자는 [A]의 화자에게 아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하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라고 말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죽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② [A]의 화자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미 [A]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다. ⑤ [B]의 화자가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53.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 파악)

- ① (다)의 '띠집'은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벗어난 것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찾으면 '그넷줄'이 된다. '그넷줄'은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밀어 올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적 지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넷줄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 꾀꼬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⑥는 지상의 아름다운 사물, ⑦는 현실적 장애물, ⑧는 초월적 이상의 세계, ⑨는 현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54.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표현 기교 파악)

- ③ ㉠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으로는 내 분수에 맞는 일로 여겨지노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므로, 자조적인 태도를 지닌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원래 '나는'으로 해야 어법에 맞는다. ② 밝은데 침침하다고 했으므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에 해당된다. ④ 천자와 자신을 비교한 것은 과장법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⑤ 물라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문이다.

55.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적용)

- ⑤ <보기>에서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에서나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시에서도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랑의 상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미련한 신분을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지만 단순하게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56. [출제 의도] 창의적 사고(다른 갈래로 전환하기)

- ④ (나)의 4연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즉 낮이 밝을수록 침침하고, 별발은 여위어가고 새는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영상화할 때 화면을 점차 밝게 하는 것은 시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화면을 어둡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는 '새'와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② 암울한 상황을 드러낸다. ③ '사슬 소리여'라고 했으므로 효과음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⑤ '떠나가는 새'와 '눈부신 구름'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57.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종합적 감상)

- ③ (다)에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세속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는 것은 세속의 일과 관련된 벼슬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세속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을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것으로 감상한 것은 정반대로 감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금쇄동의 공간을 뜻하므로 실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바위 끝 물가'는 그가 거쳐하면서 조성해 놓은 정원의 사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먼 뢰'가 임보다 반갑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연은 현실처럼 다툼과 시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만홍(윤선도) - 수능특강 49p 관련>

[58~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03 고3 서울사>

(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지어 하늘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춧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찰찰,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부풀어 오르고 평평해지고, 가지 되고 방울 되어,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 기산 영수(箕山潁水) : 중국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명리(名利)를 피하여 은거한 곳.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질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쫄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제2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홍(漫興)」 -

* 하암 :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릴 : 부러워할.

5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는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59.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의성·의태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60.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의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이며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감엔 마땅히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물러남엔 마땅히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① ‘알맞게 먹’고 ‘슬카지 노니’는 것은, 물러난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성이 게으르’다는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는 물러남으로 인해 ‘다들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임금 은혜’를 ‘값고자’ 하는 태도는, ‘나’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만홍(윤선도) <14-03 고3 서둘시>

[58~60]

58. [출제 의도] 주어진 두 시가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 ④ (가)에는 백화가 만발한 화창한 봄날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고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59.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 ④ (가) 시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거지 중천 → 원산 → 태산(기암 → 장송 → 폭포)'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암은 층층 / 장송은 낙락', '이 골 물이 주루룩 / 저 골 물이 쫄쫄' 등에서 대구를 통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의인법(장송은 - 춤을 춘다), 직유법(수정럽 드리운 듯, 은옥같이 흩어지니) 등을 통해 자연의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쫄쫄쫄, 우줄우줄, 쿵쿵, 주루룩, 쫄쫄, 으르렁' 등의 고유어뿐 아니라 '쫄쫄, 층층, 낙락' 등 한자어로 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60. [출제 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③ '물러남'은 현실적으로 정쟁에서 밀려나가거나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화자는 그런 외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러남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진술은 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홍(윤선도) - 수능특강 49p 관련>

[61~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10 고3 서울사>

(가)

김하서란 서화징(書畵徵)에도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무명화가다. 그의 수목 한 폭이 더구나 그 시절에 몇 푼짜리가 되었을 리 없다. 다만 불개청음(不改淸陰)*하는 때이니 딸에게 어버이가 내려섰고 그런 청덕(淸德)을 받드는 자식이니 텅 빈 신행(新行) 의룡(衣籠)* 속에 묵화 한 폭으로써 어엿이 시집온 것이다. 나는 그 딸 그 머느리의 고움, 맑음, 순함이 그림다. 다시 이런 사가(査家)와 이런 자부(子婦)의 향기로운 예와 덕을 향기롭게 받을 줄을 안 그 시아버지의 높음이 가히 우러러 보인다. 나는 현대가정, 현대문화, 현대여성에게서 이런 고도의 문화, 이런 고도의 미덕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雙幹墨竹勝千金(쌍간묵죽승천금)이나 庶慰平生向道心(서위평생향도심), 모두 사향(麝香)을 갈아 관주(貫珠) 줄 만한 시구들이다.

야사(野史)를 떠올리자면 수가 무궁하려니와 우선 정수동 부인도 이런 데서 생각나는 여성의 하나이다. 아내가 비가 새는 것을 걱정하니 구석구석에서 떨어져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고 “처마 끝에 급한 형세난 백척폭포 쏘아오고…….” 소상가(瀟湘歌)를 불렀다는 천하기절(天下奇傑) 수동이라 ㉠ 그의 집안이 구차할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가 남의 집 사랑에서 죽은 뒤, 그를 평소에 아끼던 대감 한 분이 엄동절(嚴冬節)을 당하여 그의 유처(遺妻)에게 쌀과 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수동의 아내 이를

[A] 받지 않았다. 대감이 궤이히 여겨 하인에게 물었다.

“뭐라고 하며 받지 않더냐?”

“누가 보내는 거냐 해서 대감께서 보내신다 했더니 그 대감께서 내게 식량을 보내실 일이 없다 하십니다.”

대감은 얼른 무릎을 치고

“내가 실수했구나! 얼른 다시 가지고 가 이번엔 내가 보낸다고 하지 말고 우리대 마님께서 보내십니다 해라.”

그제야 수동의 아내는 그 쌀과 나무를 받았다.

떨고 굶주리되 사랑(思量)과 체도(體度)를 헐지 않는 여유, 이거야말로 높은 교양이요 예의요 자존심일 것이다.

교양이라거나 자존심이란 말이 현대처럼 많이 쓰인 시대는 일찍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만 교양, 이런 자존심이 현대 우리에게, 현대 여성에게 엄연히 군림하고 계신가?

- 이태준, 「묵죽과 신부」 -

* 불개청음(不改淸陰) : 대나무의 그늘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함.

* 신행(新行) 의룡(衣籠) : 혼인을 할 때 신부가 가져오는 옷籠

(나)

┌ 산수간 바위 아래 떠집을 짓노라 하니

[B]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면

└ 어리고 향암(鄕闇)*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뽕나물을 알맞초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까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뒤편 바라보니
그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 윤선도, 「만홍」 -

* 향암(鄕闇) : 시골에서 지낸, 사리에 어둡고 어두운 사람

(다)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도 오래려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여 어즈버 잊었도다 첩피기옥(瞻彼淇澳)한데 녹색(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님대 하나 빌려주오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손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발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다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워하여 손을 친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 -

61. (가)~(다)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
- ② 타자를 바라보는 넉넉한 시선들
- ③ 운명적 갈림길에서 되돌아보는 나
- ④ 견뎌내며 불의의 시대를 관통해 나간다
- ⑤ 소외된 삶 속에 감추어진 피해한 이면들

62. <보기>에 근거하여 (나)를 해석해 보았다. 적절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보 기 >

사대부 시인들의 자연 예찬은 벼슬살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자연 예찬의 노래는 벼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쓰라림, 즉 정치적 시련,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지럽게 변하는 현실, 그리고 그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 무리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반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에는 ‘벼슬 따위는 할 수 있어도 안 한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가 들어있다.

- ① '산수', '바위' 등으로 구체화된 자연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자신을 '어리고 향암'이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벼슬살이에 대한 경계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보리밥 푼나물'은 벼슬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작가가 겪은 정치적 시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그 남은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자연에서 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되'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님의 말씀과 웃음'보다 우위에 둔 것은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에 대한 반발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63. (나)의 화자에게 '강호'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복이 위루'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공간이다.
- ② '두세 이랑 밭논'을 묵혀 던져두고 찾아가는 공간이다.
- ③ 주어진 '명'을 받아들이면서 지죽하려 하는 공간이다.
- ④ '빈이무원'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 ⑤ '설운 뜻'에서 오는 시름을 위로받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다.

64. (가)의 [A]와 <보기>를 비교하여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 보 기 >

지난날 '남녀유별'이 어땠는지를 한 야담(野談)에서 들어 보자. 곤궁한 삶에서도 해학을 즐겼던 정수동이 죽은 후, 그 부인과 어느 대감에 얽힌 이야기다. 추운 겨울을 당하여 정수동의 유족이 어려울 것임을 잘 아는 대감이 하루는 하인을 시켜 쌀과 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정수동 부인이 받지를 않아 하인은 그냥 돌아왔다. 생각 끝에 대감은 자신이 내외법(內外法)을 잊고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인이 다시 가서 이번엔 마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하니, 그제야 정수동의 아내는 그 쌀과 나무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다.

- ① 수련 : [A]와 <보기>를 보면서 주제나 의도에 따라 같은 이야기에도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 ② 진영 :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A]는 <보기>와는 다르게 대화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다른 느낌을 받았어.
- ③ 대호 : [A]와 <보기>의 글쓴이 모두 '정수동'과 '정수동 부인'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
- ④ 정주 : [A]에는 대감의 실수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보기>에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구나.
- ⑤ 상일 : [A]에 짧게 소개된 정수동 일화는 <보기>의 '곤궁한 삶에서도 해학을 즐겼던 정수동'이라는 구절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거야.

65. <보기>에 근거할 때, (나)의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나)의 [B]는 대개의 시조와 같이 표면상 '긴장 조성 - 긴장 고조 - 긴장 해소'의 의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주체와 세계와의 갈등 즉, 가치와 지향을 두고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와의 갈등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는 전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떠집'을 짓는 '나'의 행위는 긴장을 조성한다.
- ② '나'의 행위에 대한 '남'들의 웃음은 긴장을 고조시킨다.
- ③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진 세계인 '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 ④ '분수'를 들어 주체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 ⑤ '나'의 행위와 '남'들의 웃음을 절충함으로써 긴장이 해소된다.

만홍(윤선도) <06-10 고3 서울시>

[60~65]

61. [출제 의도] 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 ① (가)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정덕'을 받들어 묵화 한 폭으로 시집은 머느리와, 떨고 굽 주리면서도 사랑과 체도를 할지 않았던 정수동의 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나)의 '나'는 '남'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다)의 '나'는 '구복이 위루'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을 받아들이고 단사표음하는 삶에 자족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세 작품에는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62. [출제 의도] 해석의 적절성 평가

- ③ (나)에서 '보리밥 쫄나물'은 '산수', '띠집'과 아울러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알맞조' 먹는다는 구절, 실컷 노니는 '바위 끝 물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물질에 대한 작가의 절제와 자연에 대한 향유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오답 풀이] ⑤ (나)의 셋째 수에서는 '먼 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그리던 입이 오는' 상황과 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입, 그것도 그리워하던 입이 오는 것보다 홀로 자연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까닭은 종장의 '말씀 웃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입'은 비록 '말씀도 웃음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보기>와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변신을 거듭하는 현실 정치와 그에 따라 표류하는 인간에 대한 반발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출제 의도] 세부 정보의 추리

- ⑤ (다)에서 '나'는 자신의 가난을 '명'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자신의 삶에 '설운 뜻'은 없다고 하였다. '강호'에서의 단사표음을 자족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64.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 ③ [A]에서는 정수동의 일화를 짧게 소개하고 그 부인과 어느 대감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한 후, 그 부인에 대한 작가의 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정수동 부인의 여유와 자존이 정수동과 관련이 있음을 읽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의 경우, 정수동에 대한 언급은 '곤궁한 삶에서도 해학'을 즐겼다는 내용밖에는 없다. 정수동 부인의 이야기는 내외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④ [A]에서 대감이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말한 이유가 <보기>에는 '내외법을 잊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65. [출제 의도] 시상 전개 과정 파악

- ⑤ <보기>에 의하면 (나)의 [B]는 '기-서-결'의 시상 전개를 변용한 '긴장 조성-긴장 고조-긴장 해소'로 설명할 수 있다. 초장에 보이는 '나'의 행위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되어, 긴장을 조성한다. '나'의 행위와 그에 담겨 있는 '뜻'을 두고 '남'들이 웃음으로써 그 긴장은 고조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어리고 향암'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분'에 맞다고 하여 '나'의 뜻과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나' 그리고 '나'의 '뜻'과 그것을 모르는 '남' 사이의 갈등을 '분수'를 들어 '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만홍(윤선도) - 수능특강 49p 관련>

[66~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제까지 이른바 강호가도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부분 '사회'를 떠나온 인간'으로서의 시적 화자의 모습이 중시되었다. 더욱이 ㉠ 사회에 대한 이념과 ㉡ 자연을 향한 동경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신으로 시적 화자를 그리고 있는 경우에도 그 강조점은 항상 이념 쪽에 놓이게 된다. 이때 자연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원천이기도 하지만 종종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작용한다. 즉 사회 속에서 입은 상처를 품고 자연으로 찾아 든 시적 화자는 자연을 대상화하여 이념을 재확인하고 수신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고 해석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살아 변화하는 자연 자체가 아니라 작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재단되고 추상화한 관념적인 무엇이며, 시에 묘사된 바와 같이 자연을 누리고 찬양하는 즐거움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인 셈이다. 그러나 자연 시조의 시적 화자가 떠나온 출발점으로서의 사회가 아닌 도달점으로서의 자연에 비중을 두어 본다면 이와는 다른 견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 시적 화자는 ㉢ '자연에 안긴 인간'의 모습으로 자연을 즐기면서 그 원리를 통찰하고 자연이 가진 생명력에 의하여 치유되어 가는 것으로 설명된다. 시적 화자에게 주어진 자연의 이 같은 생명력은 개인과 시대를 넘어 인간에게 선사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강호가도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만한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나)

산수 간 바회 아래 뽕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늑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인가 호노라 <1수>

보리밥 풋느물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회 굿 몫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뽕집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 <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도 헤여든 소부 허유(巢父許由)ㅣ 낙뎡더라
아마도 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라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도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호시도다 <5수>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호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6수>

- 윤선도 -

(다)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無心)흔 돌빛만 씻고 뵈 빈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

(라)

안빈(安貧)을 염(厭)치 말아 일 업쓰면 괴 조흔이
벗 업다 한(恨)치 말라 말 업쓰면 이 조흔이
암아도 수분 안줄(守分安拙)이 괴 올흔가 호노라

- 김수장 -

- * 호종: 임금에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던 일, 또는 그런 사람
- * 하얗: 시골에 사는 건물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만승(萬乘): 천자의 지위

66. ㉠, ㉡과 거리가 가까운 것을 (나)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
①	너나쁜 일, 삼공, 인간 만스	뽕집, 뽕, 소부허유
②	뽕집, 삼공, 인간 만스	너나쁜 일, 뽕, 소부허유
③	뽕, 삼공, 인간 만스	뽕집, 너나쁜 일, 소부허유
④	뽕, 너나쁜 일, 삼공	뽕집, 소부허유, 인간 만스
⑤	너나쁜 일, 뽕, 인간 만스	뽕집, 삼공, 소부허유

67. ㉢을 바탕으로 (나)~(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2수>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만족함으로 속세에서의 삶을 잊어가고 있다.
- ② (나)의 <3수>에서 화자는 말없이 묵묵히 옆에 있어 주는 자연으로부터 커다란 위안을 얻고 있다.
- ③ (나)의 <4수>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속세의 부귀영화보다 낫다는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
- ④ (다)의 화자는 무심한 달빛을 통해 욕심내지 않는 삶의 자세를 배워가고 있다.
- ⑤ (라)의 화자는 가난하고 혼자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68. 시에 나타난 '자연물'을 중심으로 (다)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江碧鳥逾白 강이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山青花欲燃 푸른 산에 꽃은 불타는 듯하다
今春看又過 이 봄은 또 지나가는데
何日是歸年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 두보, 「강벽(江碧)」 —

- ① (다)와 <보기> 모두에서 자연물은 화자와 속세를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다)와 <보기> 모두에서 자연물은 시적 자아의 정서와 대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 ③ (다)의 자연물은 화자에게 친화의 대상이지만, <보기>의 자연물은 화자와 경쟁의 대상이다.
- ④ (다)의 자연물은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을, <보기>의 자연물은 작자의 쓸쓸한 심회를 대변하고 있다.
- ⑤ (다)의 자연물은 화자에게 삶의 충만함을, <보기>의 자연물은 화자의 고향 상실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69.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어조의 변화를 통하여 화자의 심경이 고조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라)는 대응되는 두 행을 배열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만홍(윤선도)

[66~69]

66.

- ① '너나쁜 일'은 자연에서 즐기는 삶 그 외 남은 일이므로 속세의 일을 의미하며, '삼공'은 정승벼슬로서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만수'는 속세의 일을 의미하므로 이 세 가지는 '㉠ 사회에 대한 이념'과 가까운 시어이며, '뛰집'은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소박한 집을 의미하며, '퇴'는 산으로서 자연 자체를 의미한다. 또한, '소부허유'는 속세를 등지고 살아간 은거기인이므로 이 세 가지는 모두 '㉠ 자연에 대한 동경'과 가까운 시어이다.

67.

- ⑤ (라)는 안분지족한 삶의 자세는 나오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리밥과 꽃나물을 먹으면서 물가에서 노는 삶의 여유로움으로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부러움을 떨쳐버리고 있다. ② 자연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 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③ 자연에서의 삶의 모습이 최고더라는 깨달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무심한 달빛을 통해 욕심내지 않는 자연의 원리를 알고 이를 통해 자연속에 묻혀 사는 삶을 배우고 있다.

68.

- ④ (다)에서 화자는 강에서 낚시를 하면서도 고기를 잡는 것에 관심이 없이 그저 욕심없는 삶에 만족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화자는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보면서 정작 자신은 갇혀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쓸쓸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이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려면 어떠한 장애물의 정서를 가져야 하는데, (다)의 자연이 화자의 삶의 공간이긴 하나 단절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고, <보기>에서 화자는 갇혀 있기는 하나 이는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물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에서 자연은 쓸쓸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으나, (다)의 자연은 화자의 삶의 정서와 일치하는 공간이다. ③ (다)의 자연에 대해 화자는 친화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보기>의 자연은 화자와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다. ⑤ <보기>의 자연은 고향을 잃어버린 화자의 쓸쓸함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의 자연이 화자에게 주는 교훈은 삶의 충만함이 아니라 욕심을 비운 삶의 여유로움이다.

69.

- ③ 작품 내에서 화자의 어조가 특별히 바뀌는 부분없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안분지족한 삶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 역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산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사랑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도 반갑다고 하면서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소부와 허유에 얽힌 고사를 통하여 안분지족한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④ 무심한 달빛을 싣는다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욕심없이 사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⑤ 초장과 중장이 서로 대응이 되도록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화자가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님이 오마하거늘~(작자 미상) - 수능특강 52p 관련>

[70~7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06 고1 서울사>

(가)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있거늘 ㉢ 가슴이
금죽하여* 풀쩍 뛰어 내닫다가 ㉣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랜 나일세망정 어혈(瘀血)* 질 뻔 하괘라.

- 작자 미상 -

* 백송골: 흰 송골매.

* 금죽하여: 섬뜩하여.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멍이 드는 일.

(나)

㉠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는가 ㉡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횃들*
서 있거늘 ㉢ 저야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
에 쥐고 곱비님비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엿말 하려 하고 결눈을
홀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 사흘날 값아 벗긴 ㉣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고나.㉤ 모쳐라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낯 웃길 뻔 하괘라.

- 작자 미상 -

* 이수로 가액하고: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 거머횃들: 검은 듯 흰 듯한 것.

* 곱비님비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엇치락뒤치락 허둥거리며.

* 위령충창: 우당탕통탕.

* 주추리 삼대: 발머리에 심어 둔 삼의 줄기.

70.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구조상 ㉠~㉢과 ㉣~㉤는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이는, (가)는 거만하게 위세를 뽐내다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나)는 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 ① ㉠이 비판의 대상이라면, ㉣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이 거만함이 반영된 것이라면, ㉤는 기대감이 행동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이 시적 대상의 심리라면, ㉣는 시적 화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이 성찰을 유도하는 소재라면, ㉣는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군.
 ⑤ ㉤이 자신을 합리화한 표현이라면, ㉣는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7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상황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④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내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⑤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넘이 오마하거늘~[작자 미상] <13-06 고1 서울시>

[70~71]

70. [출제 의도] 두 작품의 시어를 비교 감상한다

- ④ '두엄'은 '두터비'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찰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주추리 삼대'는 화자가 임이라고 여기게 했다는 점에서 작가를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가슴이 금죽하여'는 관찰자 입장에 있는 화자가 '두터비'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적 대상인 '두터비'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저야 님이로다'는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보고 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적 화자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⑤ ㉔에는 '내가 날렵했기에 그나마 피명은 듣지 않았다'라는 자화자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두터비'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에는 '그나마 밤이라 다행이다'는 화자의 안도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㉔는 자조적인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71.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한다.

- ③ '회화'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가)는 '두터비'가 위세를 뽐내며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있다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가려고 두엄에서 뛰어내리다가 결국은 자빠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통해, (나)는 '주추리 삼대'를 에타게 기다리던 임으로 착각한 화자가 엇치락뒤치락 허둥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통해 두 작품이 대상을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곰비닐의 님비곰의 천방지방 지방천방'에서만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 ② (나)에서 '살뜰이도는'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매우 지극하다'는 의미이다. '주추리 삼대'가 나를 속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반어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우의'라는 말은 '다른 사물에 빗대서 은연중 어떤 의미를 비추는'을 의미한다. (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동물인 '두터비'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의적인 작품이지만, (나)는 우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님이 오마하거늘~(작자 미상) - 수능특강 52p 관련>

[72~7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十五越溪女 열다섯 살 아리따운 아가씨가
羞人無語別 남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헤어지네
歸來掩重門 돌아와 겹겹이 ㉠문을 잠그고
泣向梨花月 달빛 어린 배꽃 보며 하염없이 눈물짓네
- 임제, 「무어별(無語別)」 -

(나)

님 그린 상사몽(相思夢)이 실솔(蟋蟀)의 녀시 되어
추야장(秋夜長) 깊은 밤에 님의 방(房)에 드렀다가
날 녀고 깃히 든 잠을 씨와 볼가 흐노라
- 박효관 -

(다)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회 치드
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노가 가노가 건넌 산
(山) 바라보니 거머뿔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닐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
방천방 즈디 므른디 굴하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엿
말 흐려 하고 겹눈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굴가벽진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망정 형혀 낮이런들 늬 우일 번흐쾌라.
- 작자 미상 -

7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관찰자적 시각에서 이별한 여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는 계절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④ (다)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들뜬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다)는 입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3.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행위인 데 반해, ㉡은 화자에게 절망감을 주는 행위이다.
- ② ㉠은 공간을 확장해 가는 행위인 데 반해, ㉡은 공간을 축소시켜 가는 행위이다.
- ③ ㉠은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데 반해, ㉡은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이다.
- ④ ㉠은 화자의 소극적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인 데 반해, ㉡은 화자의 적극적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⑤ ㉠은 화자의 극한적 상황을 드러내는 행위인 데 반해,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74.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좁고 이별혼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쉼만 오락가락 흐노매

- 계량 -

- ① <보기>는 (나)와 달리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헤어진 입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나)는 <보기>와 달리 추상적 개념을 감성 이입된 자연물을 통해 구체화하여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③ (나)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소망을, <보기>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는 화자가 '실솔'을 통해, <보기>는 화자가 '이화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을, <보기>는 거리를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헤어진 입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님이 오마 하거늘(작자 미상)

[72~74]

72.

② (나)에는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

73.

④ ㉠의 ‘문’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후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잠그는 것으로 사랑과 이별의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의 ‘문(중문)’은 화자가 임을 만나기 위해 열어야 하는 것으로 임이 열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임이 직접 문을 열고 임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볼 때 사랑과 이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74.

④ <보기>의 ‘이화우’는 가슴 시린 이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므로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을 반영한 자연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 또한 확인할 수 없다.

<나모도 바히들도~(작자 미상) - 수능특강 52p 관련>

[75~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06 고1 서술사>

(가)

늦은 봄 떠나는 벗 보내고 오니
눈앞 가득 고운 풀에 맘이 아프네.
훗날 조각배 돌아오거든
뱃사공이여 알려 주소.
안개 낀 강 아스라이 천 리를 흐르고
① 만물은 버들개지인 양 어지러이 날리네.
하물며 꽃 지는 이 계절에
사람 보내고 연연하지 않겠나.
노을은 햇빛 비치 붉게 흐르고
먼 강물은 하늘만큼 푸르네.
강가의 버드나무 수없는 푸른 실은
내 마음 얹매어 머물게 하네.

暮春去送人歸
滿目傷心芳草
扁舟他日歸來
爲報長年三老
煙水渺瀰千里
心如狂絮亂飛
何況落花時節
送人能不依依
殘霞映日流紅
遠水兼天闊碧
江頭柳無限絲
未解絆留歸客

- 이규보, 「모춘강상송인후유감(暮春江上送人後有感)」 -

(나)

나모도 돌도 바히 엽슨 뒀에 매게 쫓친 불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온대 일천 석(一千石) 시른 대중강
(大中缸)*이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돛대도 겹고 농충*도 끈코
키도 빠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거 자자진 날의,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고 사면(四面)이 거머어둑 천지 적막
가치노을 떠난대*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련 ② 내 안하야 엇다가 가을하리오.*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안: 안(內), 곧 심정.
- * 대중강: 규모가 제법 큰 배.
- * 농충: 돛대에 맨 굵은 줄.
- * 가치노을 떠난대: 사나운 물결이 일어나는데.
- * 도사공: 뱃사공의 우두머리.
- * 가을하리오.: 전주리오, 비교하겠는가.

(다)

목련꽃이 필 무렵이면 어렸을 때 내가 자랐던 시골집의
뜰에 피던 목련을 생각하게 된다. 병풍처럼 둘러친 대밭
을 등진 남향의 우리 집 뜰에 황금빛 봄별이 아늑하면 망
형(亡兄)의 병창(病窓)*앞, 잎이 피기도 전인 나목(裸木)
의 가지 끝마다에 붓처럼, 가지[茄]*처럼 모두 하늘을 우
러러 고개를 세운 꽃망울들이 공간이라는 호수에 뜬 연꽃
인 듯 피어나기도 하고 봉긋하게 모은 두 손인 듯 내일을
기약하는 모습을 생각한다.

내가 특히 목련이 필 무렵이면 옛집을 생각하는 데는 슬프게
살다 간 망형의 영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형이 지금 살
아 있다면 여든 일곱의 나이인데 그가 돌아가신 건 마흔 여덟
의 젊은 나이였으니 그가 죽고 나서 오늘로 40년의 세월이 흐
른 셈이다. 형은 우리 8남매의 맏이로 태어났는데 막내인 내가
태어나기 일 년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8
남매는 어머니 없이 올망졸망 자란 것이다. 따라서 우리 8남매
는 한 몸처럼 결속했고 사랑했다. 특히 동생들에 대한 형의 사
랑은 형제 사랑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임

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식
보다는 형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끝에 “처자는 의복이요, 형
제는 수족이라. 의복파시(衣服波時)엔 갱부득(更不得)이나 수
족단시(手足斷時)엔 난부속(難不續)이라.*”는 옛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 말뿐이 아닌 실제로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행동했
었다. 한 말로 말해 그가 나중에 얻은 자기 자신의 아들 딸들
에 대한 사랑이 동생들 사랑보다 더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음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 실증은 갖가지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지금
내 자식들이 하는 우애라는 것을 나는 비웃고 싶어진다. 아버
지마저 오래 살지 못했으니 나는 형의 보살핌으로 자란 셈이며
나에서 떠난 육친을 생각할 적엔 아버지보다는 형이 앞선다.
그 형이 열넷의 어린 나이로 결혼을 했고 다음에 잘못해서 눈
을 다친 것이 화근이 되어 끝내는 화농*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다. 항생제가 판을 치는 오늘날이라면 문제가 없었으련만
70년 전의 옛일이니 사정은 다르다. 대도시에만 있었다는 병
원을 찾아 부산도 서울도 다녔다지만 오늘날과 같은 안과이나
시력이 있을 리도 없었으므로 끝내 완치하지 못한 채 오랜 세
월을 투병으로 허송했었다.

(중략)

눈이 어두운 몇 번의 봄을 나면서 형은 나에게 뜰 아래 목련
꽃이 피었느냐고 묻곤 했다. 그럼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
미 피었다고도, 아직은 이르다고도 혹은 이미 낙화해 저버렸다
고도 알려드리면 형은 자기가 묻고 있는 목련의 현황보다는 떨
리는 나의 목소리만 듣고도 울진 왜 우느냐고 달래곤 했었다.
그러던 형이 끝내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시골집도 누구의 소유
로 넘어갔는지 알길 없으며 거기 서 있던 목련꽃 나무에 이르
러서야 더구나 알 바가 없다. 그 뒤 나는 고향을 멀리하고 객
지로 전전하며 생애의 대부분을 살아온 동안 4월이 오면 형의
슬픈 모습과 목련을 생각하는 버릇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어느 날 밤, 꿈속에 형이 나타났는데 그 깨끗하고 다
정하고 재기에 넘친 건강했던 시절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꿈
속에서도 생각하기 싫은 병상에서의 형의 모습이었다. 형은
“목련이 지금 피었느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꿈속에서도 그
옛집이 이미 우리 집이 아니고 그 목련 또한 어찌되었는지 알
지 못하면서도 “네, 한창 피었네요.”하고 대답했더니 형은 금세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그러
나 내가 한 거짓말의 뜻이야 모르겠느냐고 생시처럼 너그러웠
다. 형을 속인 죄책감에 어찌지 못하다가 눈을 뜨고 나니등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목련이 필 무렵이면
고향의 옛집을 생각하고 망형의 병창 앞에 서 있던 한그루 자
목련을 회상한다.

- 박규환, 「목련꽃 필 무렵」 -

- * 망형의 병창: 죽은 형이 병을 앓으며 누워 있던 방의 창.
- * 가지[茄]: 연 줄기.
- * 의복파시(衣服波時)엔 갱부득(更不得)이나 수족단시(手足斷時)엔 난부속(難不續)이라.: ‘의복이 상하게 되면 다시 얻기 어렵지만, 팔다리가 잘려지면 이어 붙이기 어렵다’는 뜻.
- * 화농: 종기가 끓어서 고름이 생김.

7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을 통해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단절이 작품을 창작한 계기가 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⑤ 특정 공간에서의 애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7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떠난 벗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고, ㉡은 입을 잃은 허전한 마음이다.
- ② ㉠은 벗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운 마음이고, ㉡은 자신을 떠난 입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다.
- ③ ㉠은 벗을 떠나보내서 생긴 심란한 마음이고, ㉡은 입의 상실로 인해 생긴 절망적인 마음이다.
- ④ ㉠과 ㉡ 모두 떠난 사람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해서 생긴 아쉬운 마음이다.
- ⑤ ㉠과 ㉡ 모두 떠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다.

77. [A]와 [B]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글쓴이의 처지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고백적 어조를 통해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자연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색채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활용하여 시각적 인상을 주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회상의 매개체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78. (나)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 할 때,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보 기>

나모도 업슨 뵈에 매게 쫓친 불가토리,
대천 바다 한가온대 수적 만난 도사공,
진실로 님 여훤 나와 전줄 거시 업도다.

- ① 종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더 강조해야겠어.
- ② '불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좀 더 풍자적으로 그려야겠어.
- ③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과 열거를 사용해야겠어.
- ④ 화자의 심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겠어.
- ⑤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대로 활용해야겠어.

79. (다)의 글쓴이가 <보기>와 같이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머니는 막내인 저를 낳고 일 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 만인 형은 우리 8남매를 자신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은 그만 눈을 다치셨죠. …… 눈이 어두운 형은 봄이 되면 목련꽃이 피었느냐고 물었고 ㉡ 저는 울면서 대답하곤 했지요. 그러면 형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곤 했어요. ㉢ 형이 돌아가시고 저는 시골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형이 저에게 목련이 피었느냐고 물으셨죠. ㉣ 알 수 없었지만 한참 피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 그러자 형은 저의 거짓말에 평상시처럼 크게 화를 냈고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목련이 필 무렵이면 고향의 옛집과 형의 방 창문 앞에 있던 한 그루의 자목련을 회상합니다.

- 망형을 잊지 못하는 동생이 형에게 -

- ① ㉠ ② ㉡ ③ ㉢ ④ ㉣ ⑤ ㉤

나모도 바히돌도(작자 미상) <12-06 고1 서울시>

[75~79]

75. [출제 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③ (가)는 벼를 떠나보낸 슬픔과 벼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사랑하는 임을 여원 절박한 심정을, (다)는 세상을 떠난 형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대상과의 단절이 작품을 창작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6. [출제 의도] 시어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 ③ ㉠은 벼과의 이별로 어지럽게 날리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은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이나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자의 마음, 사랑하는 임을 여원 뒤의 절망적인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에는 벼를 떠나보내서 생긴 심란한 마음이, ㉡에는 임의 상실로 인해 생긴 절망적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77.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 ④ [A]는 저녁 강가의 풍경과 벼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B]는 시골집 마형의 병창 앞에 있던 목련을 떠올리는 글쓴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에는 '불계' 흐르는 노을, 버드나무 수없는 '푸른' 실, [B]에는 '황금빛' 봄벌과 같이 색채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활용하여 시각적 인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⑤ [B]에서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인 '목련'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어렸을 적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지만, [A]에서는 그러한 소재를 찾을 수 없다.

78. [출제 의도] 표현의 특징 및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② (나)에는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열거법 등의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기>와 (나)에는 모두 '불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나'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내지는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 종장의 '가을하리오는' '건주리오', '비교하겠는가'라는 의미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 ③ <보기>와 달리 (나)의 종장에서는 '도사공'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과장하며 열거하고 있다. ④ <보기>에 비해 (나)는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장을 길게 늘어 놓고 있다. ⑤ '불가토리', '도사공'과 화자를 비교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나)와 <보기> 모두 활용하고 있다.

79. [출제 의도] 작품 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⑤ 이 작품에서 마형은 자신의 처자보다 동생들을 더 사랑하고, 너그럽게 동생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나의 꿈에서 '목련이 지금 피었냐'고 묻는 형의 질문에 거짓말을 한 나에 대해서도 '거짓말의 뜻이야 모르겠느냐'며 형은 생시처럼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형이 평상시처럼 크게 화를 냈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사미인곡(정철) - 수능특강 54p 관련>

[80~8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06 고3 평가원>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달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널 놓고 앓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뚫 불어 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배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갇출시고. 산호수 지계 위에 백옥합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서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등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서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전공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서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서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반치고 기대니 앙금(鴛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 앙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8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81.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8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남은 ~ 됩시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83.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84. (나)의 '부둣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둣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둣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둣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둣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둣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8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사미인곡(정철) <13-06 고3 평가원>

[80~85]

80.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④ (가)에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뜻한다. (나)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을 키우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에서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이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이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② (가), (나)에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에서는 매화에 말을 건넌 부분이 대화체에 해당한다. 독백체는 (가)의 뒷부분과 (다)의 일부에만 나타나지만, (다)에서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색채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이다. '백옥함', '청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과 같이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색채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가 구사되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특성은 (나)에서만 나타난다. (나)의 '틸썩'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구비구비'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81.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① (가)의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유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런 표현은 다양한 자연 현상 어디에서나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사람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나)에는 뚜렷한 시상 전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의 경우는 1~5행은 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6행은 이러한 임(진리)을 향한 구도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상이 바뀌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자연 현상을 가져와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가)의 경우 자연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의 경우 사랑을 자연과 관련해 빗댄 것이지 상황과 자연 현상의 '대비'로 볼 수는 없다. ⑤ (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82.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③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를 '절대자'의 존재를 탐구하며 구도자로서 자기를 정립, 극복하는 시라고 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시 구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의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으며,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답 풀이] ① ㉠ '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조적이며,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으므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④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으로,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로 이해가 가능하다. ⑤ ㉣ '약한 등불'은 구도자로서의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으로 볼 수 있다.

83.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의미 파악)

⑤ [A]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랑이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됨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은 이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연에 밝혀졌다. ④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84.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핵심어의 비교 및 감상)

⑤ (나)의 '부둣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의 '부둣가'는 배가 들어오고 그 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시에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다)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님이 떠나고 난 뒤 부채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부둣가'에서 반복되는 시련을 찾을 수 없으며, '수막'은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② '부둣가'는 나와 사랑하는 이의 개인적 공간이지 공동체적 공간이 아니다. '수막'은 님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개인적 공간이다. ③ '수막'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적 공간이나, '부둣가'는 회귀하고 싶은 과거의 공간이라 볼 수 없다. ④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나 부둣가는 누군가가 누구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85.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④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다)의 내용 및 주요 소재의 의미를 신하의 연군지정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추운 날씨에 '조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에게 드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그리움이, 임금의 은혜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옷'은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지상의 화자와 천상의 '달, 별'은 군신 간 수직적 관계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신하인 화자가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임금'이 맞다. ⑤ 차가운 '양금'으로 신하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담겨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미인곡(정철) - 수능특강 54p 관련>

[86~9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6 고1>

(가)

동풍이 문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가?
 황혼에 달이 쫓아 배갯말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꽃다.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을 돌려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었던가?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었네.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고 험할지고.
 천리 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가?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 * 나위: 비단으로 만든 포장.
 * 수막: 수 놓은 장막.
 * 부용: 부용장(芙蓉帳). 연꽃 무늬 비단으로 만든 방장.
 * 제도: 마련된 법도. 여기서는 옷을 만드는 격식을 가리킴.
 * 백옥함: 흰 옥으로 만든 함.

(나)

하사(夏詞) 1

곳은 비 몇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 떠라 배 떠라
 ㉢ 낚대를 돌려메니 깊은 흥을 금치 못할려라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 안개 강 첩첩 봉우리는 뉘라서 그려냈고

하사(夏詞) 10

㉤ 조막집* 바라보니 백운(白雲)이 둘러 있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 부들 부채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 조막집: 자신의 작은 집을 이룸.

(다)

하선동력(夏扇冬曆)이란 말이 있다. 여름엔 부채를 선사하고 겨울엔 다음해 책력을 선사하는 것이 짝은 생색이 났던 모양이

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같이 에어컨으로 냉방을 차리거나 선풍기로 땀을 끄는 일이 없으니 이들이 거의 생활의 필수품이었을 것이요, 책력 또한 절기를 따라 1년 행사의 계획을 짜던 때고 보니 그럴싸한 미풍양속임에 틀림없다. 조선 말엽까지만 해도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들어 재상과 궁정 관리를 비롯하여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나눠주어 단오선(端午扇)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영·호남의 방백과 절도사 지방장관도 그 지방 특산의 부채를 궁중에 진상했다고 한다.

중국 동진조(東晉朝)의 명신인 사안은 왕회지와 교유하여 유명하거나 당시 뛰어난 풍류객으로도 또한 이름이 있다. 하루는 동양 태수로 부임한 친구 원평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부채 한 자루를 꺼내 주면서

“이걸 기념으로 받아 주게.”

했더니, 원평은 그 부채를 받아들자

“이 ㉦ 부채로 어진 바람을 일으켜 백성들의 생활을 돌봐 주겠네. 그것이 나의 최대의 목표니까…….”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부채를 주고받는 사람의 정신 구조가 이쯤 되고 보면, 탐관오리 때문에 골치 앓을 백성은 없으리라. 탐관오리가 득실거리는 풍토에서는 재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다.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저(韓山細紵)*로 조촐히 차린 여인이 옥같이 희고 고른 치열을 태극선으로 살짝 가리고 이야길 주고받는 모습도 우아하려니와, 구절오십시(九節五十矢)의 합죽선을 가꿈 뿔다 접는 선비의 풍채도 또한 이에 못지 않은 풍정이리라.

그 태극선이나 합죽선이 전주산이고 보면 더 이를 데 없으려니와, 선추*에는 비취와 호박을 물리면 더 좋을 것이요, 옥각(玉角)에 십장생을 조각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운치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그 합죽선에 열두 가지 빛깔을 낸다는 목화로 산수도를 넣었다면 깊은 산골짜기의 물소리와 더불어 숲속에 이는 청풍을 동반하기 마련일 것이니, 모터로 바람을 일으켜 살갗을 스쳐가는 선풍기의 바람에 비할 바 아니리라.

부채는 살갗을 스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시원스레 씻는 바람이고 보니, 어찌 속된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마음을 맡길 수야 있으랴?

- 신석정, 「멋」 -

- * 한산 세저: 한산에서 생산되는 울이 가늘고 고운 모시.
 * 선추: 부채고리에 매어 다는 장식품.

86.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② (나)에는 화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가)와 (나)의 화자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④ (나)와 (다)의 화자는 자연에 동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가)~(다)의 화자는 과거의 삶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

8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물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대상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8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미인곡」은 작가가 선조 때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전라도 창평에 있을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별한 임을 연모하는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읊은 가사이다.

- ① '수막이 비어 있다'는 창평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표출한 것이다.
- ② '임의 옷 지어내니'는 임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수품은 물론이고 제도도 갖추었네'는 임금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고 험할시고'는 자신을 탄핵한 반대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이다.
- ⑤ '나인가 반기실가'는 자신의 충성심을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 것이다.

89. ㉠과 ㉡의 '부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깨달음의 도구이다.
- ② ㉠과 ㉡는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 ③ ㉠과 ㉡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④ ㉠은 행동 변화, ㉡는 인식 변화의 요인이다.
- ⑤ ㉠은 유유자적한 삶, ㉡는 애민의 삶을 드러낸다.

90. (다)를 쓰기 위해 글쓴이가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써야겠어.
- ② 대조적인 소재로 글을 전개해야겠어.
- ③ 미풍양속 소개로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④ 설의적 표현으로 의지를 강조해야겠어.
- ⑤ 예화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겠어.

사미인곡(정철) <10-06 고1>

[86~90]

86. [출제 의도]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㉔ (나)에는 화자가 자연에서 누리는 어부 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㉔이다.

[오답 풀이] ㉑ (가)에서 화자가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은 없다. ㉓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가), (나) 모두 거리가 멀다. ㉕ 자연에 동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나)는 가능하나 (다)와는 거리가 멀다. ㉖ 과거의 삶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은 (가)는 해당하나, (나), (다)와는 거리가 멀다.

87. [출제 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㉕ ㉖의 조막집은 화자가 자연에서 기거하는 곳을 의미한다. 조막집과 대조되는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㉕이다.

[오답 풀이] ㉑에서 '매화'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고, ㉒에서 '꽃, 나무'의 '녹음이 질다'는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㉓에서 '흥'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을, ㉖은 자연의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88. [출제 의도] 외재적 관점에서 작품 감상하기

㉕ 「사미인곡」은 연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이다. '나인가 반기실가'는 임금의 충성심을 알아줄까 하는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지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㉕이다.

89. [출제 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㉕ ㉖의 '부들부채'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화자의 유희자적인 삶을 의미하고, ㉖의 '부채'는 담관오리가 득실거리는 풍토에서 백성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㉕이다.

90. [출제 의도] 구상 내용 파악하기

㉑ 예화는 '중국 동진조의 명신 사례'에서, 설의적 표현은 마지막 부분의 '—있으랴?'를 통해, 미풍양속 소개는 '조선조에서 부채를 주고받는 것'을 통해, 대조적인 소재는 '부채와 선풍기(에어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㉑이다.

<사미인곡(정철) - 수능특강 54p 관련>

[91~9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흰나비, 너 청산 가자 白蝴蝶汝青山去
 뱀나비들아, 날아 함께 청산 가자 黑蝶團飛共入山
 가다가 해 저물면 꽃에 들어 자고 가자 行行日暮花堪宿
 꽃이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花薄情時葉宿還
 - 신위, 「호접청산거(蝴蝶青山去)」 -

(나)

늘 먹는 밥을 먹고 사립문을 나설 때면 尋常飯後出荊扉
 그때마다 ① 뱀나비가 나를 따라 날아오지 輒有相隨粉蝶飛
 삼밭 뚫고 보리밭 길 꼬불꼬불 헤쳐 가니 穿過麻田迤麥壟
 풀과 꽃은 가시 돋쳐 내 옷깃을 당긴다 草花芒刺易罥衣
 - 김창흡, 「갈역잡영(葛驛雜詠)」 -

(다)

흐르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을 그든 마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띄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에 붓티고저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심산 궁곡(深山窮谷) 점났ㄴ터 땡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색(閉塞)해야 백설(白雪)이 혼 비친 제
 사름은크니와 늘새도 굴쳐 있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러 므슴흐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거신 디 쏘이고저.
 모첩(茅簷) 비취 헛를 옥누(玉樓)에 올리고저.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쉼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슈뚝(日暮脩竹)의 헝가림도 하도 할샤.
 님은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터 던공후(銅鑾篋) 노하두고
 쉼의나 님을 보려 톱 밧고 비겨지니
 양금(鴛鴦)도 츄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쉼고.
 흐르도 열두 때 혼 둘도 쉼날
 저근덧 생각 마라 이 시름 님자 흐니
 므옴의 미쳐 이서 골슈(骨髓)의 쉼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① 뱀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조려 흐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9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청유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화자가 가진 자연 친화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④ (다)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는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92. <보기 1>을 참고하여 (가)와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

선생님: 구비 문학인 민요는 시조나 한시로 재창작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노래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해요. 민요가 시조로 창작될 경우에는 우리말의 음률을 잘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요. 그렇다고 한시와 민요 중 어느 것의 문학성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 기 2>

나뒹야 청산(靑山)에 가자 뱀나뒹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무러든 곳의 자고 가자
 곳에서 푸대접하거든 님해서나 자고 가자
 - 작자 미상 -

- ① (가)는 형식적으로 볼 때, <보기 2>를 이용해 재창작된 것이겠군.
- ② <보기 2>는 표현적으로 볼 때, (가)보다 우리말의 음률을 잘 살린 것이겠군.
- ③ (가)의 '청산'과 <보기 2>의 '청산'은 내용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겠군.
- ④ <보기 2>는 내용적으로 볼 때, (가)보다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는데 더 적합했겠군.
- ⑤ (가)는 형식적으로 볼 때, <보기 2>보다 형태면에서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군.

93.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룻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리 널 제'는 '기러기'에 작가의 외로운 감정을 이입하여 드러내는군.
- ② '심산 궁곡 점낮 2터 밍그쇼셔'는 임이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기원하는 표현이군.
- ③ '건곤이 폐식하야 빅설이 혼 비친 제'는 겨울의 추위를 통해 임에 대한 걱정이 커짐을 나타내는군.
- ④ '홍상을 니미초고 취슈를 반만 거더'는 임과 이별한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나타내는군.
- ⑤ '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하리'는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육체의 병은 쉽게 고칠 수 없음을 암시하는군.

94.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과거를, ㉡은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②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은 화자의 힘겨운 현실을 의미한다.
- ③ ㉠은 화자와 교감을 나누는 대상을, ㉡은 화자의 분신을 나타낸다.
- ④ ㉠은 화자의 강직한 신념을, ㉡은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 인식을, ㉡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경의감을 나타낸다.

사미인곡(정철)

[91~94]

91.

- ⑤ (다)에서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은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이다. (다) 부분에는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을 서술하는 부분이 아니라 임과 이별하고 난 이후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

92.

- ② <보기 1>에서 민요가 시조로 재창작될 경우에는 우리말의 음률을 잘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보기 2>는 민요를 시조로 재창작한 것에 해당하므로 우리말의 음률을 잘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기 2>를 이용해 재창작한 것이 아니라 민요를 한시와 시조로 각각 재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청산'은 같은 민요에서 재창작된 것으로 전체적인 노랫말의 의미 변화는 없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④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것도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형태면에서 어느 한쪽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보기 1>의 내용을 통해 문학성의 우월을 가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93.

- ⑤ '편작이 열혀 오나 이 병을 었다 하리'는 자신이 걸린 병은 임과 헤어진 후 임이 그리워 생긴 병으로 육체적인 병보다는 마음의 병에 가깝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명의가 온다고 해도 고칠 수 없으며, 자신의 병은 오직 임을 만나야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94.

- ③ (나)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인 '범나비'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는 임과 이별한 후의 연군지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죽어서 '범나비'라도 되어서 임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된다.

<만연사(만조원) - 수능특강 57p 관련>

[95~10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09 고3 평가원>

(가)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있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막아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떴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다) 사립을 찢어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었으니,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남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대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남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뉘대 그림자에 저 잠을 날탄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잠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홍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홍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랴.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값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연사」 -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한민: 한가로운 백성.

9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96.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97.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98.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99.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100.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 보 기 >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었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얹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만안사(안도환) <09-09 고3 평가원>

[95~100]

95.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② (가)는 시적 화자가 꽃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꽃에게 문을 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은 손, 호느낌, 아프고 서러워’ 등의 표현에서 의인화된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 낚시를 하던 화자는 낚시대 그림자에 놀라 날아가는 백구에게 내 마음을 왜 몰라 주냐 하며 가지 말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산천을 ‘홍일’로, 만경창파를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가사의 4음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④ (나)에서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 나무들의 시련과 활짝 피어나는 날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유장한 어조’란 ‘답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어유를 보여 주는 어조’를 말한다. (다)에서 화자는 한가롭게 낚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96.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② (가)에서 화자는 산세에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꽃이요 꽃이 문을 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현실의 대상으로 열거된 ‘노래, 말, 산돼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에서 화자는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를 하는 목적이 ‘은린옥척’을 잡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했다. 그렇기에 은린옥척 역시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머무는 장소는 꽃밭이다. ③ (가)에서 개벽은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다. (다)의 성세 또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⑤ (가)에서 물낚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아이는 현재의 화자로 비유되어 있다. 즉, 화자는 초월적, 절대적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꽃이 문을 여는), 현재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의 ‘그림자’는 낚시대와 그림자일 뿐이요, 백구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벗남’은 ‘백구’의 친구이기에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97.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상 전개방식의 파악)

① 설의적 표현이란 의문의 형식을 취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나)에서 1행과 2행은 ‘얹으리’로 끝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두렵다, 무섭다’의 의미이며, 이를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도 중간 부분 이후에 ‘내 마음 모를소냐’, ‘하물며 너 잡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어둠과 비바람의 계절을 이겨내고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는 계절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화자가 일관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무들’이다. ④ (다)는 낚시를 하며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외부 세계보다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98.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감상)

② ‘원주’에 따르면 (가) 시는 집을 떠나기 전 사소가 한 독백이다. ‘노래, 말, 산돼지, 산새들’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사소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 당시까지의 삶에 흥미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심리는 사소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게 된 심리적 배경과 원인의 구실을 한다. 아울러 ‘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9.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

② (나)에서 화자는 나무들의 연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즉, 현재는 비록 ‘작은 손’으로 표현되었듯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어둠과 비바람에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뒤에는 꽃과 열매가 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④ 시련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100.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④ (다)는 낚시를 하며 한가로움을 느끼던 화자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내용이며, 글쓴이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적대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평생의 곱던 입을 ~ 마음을 둘 데 없어’에서 화자의 외로움과 수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낚시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③ 백구가 내 가슴을 쏘아 헤치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⑤ 화자는 흥중에 붉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성인을 갓졌다고 했다.

<만언사(만조원) - 수능특강 57p 관련>

[101~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07 고3 인천사>

(가)

유배(流配) 시가는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시가들을 총칭한다. 유배 시가는 고려 시대 정서의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시초로 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와 시조나 가사 등의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시조는 초·중·종 3장의 정형화된 형식 안에 유배객의 삶과 정서를 간결하게 응축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가사는 연속체(連續體)로,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A]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유배객이 많았던 조선 시대의 유배 시가에는 정적(政敵)에 대한 원망, 결백의 호소, 정계 복귀에 대한 소망 등이 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정치적 유배객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며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유교 이념을 굳건히 지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광해군 때,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어 쓴 연시조 「견회요(遣懷謠)」에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정치적 유배객들 중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속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유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유배객은 정계에 대해 원망하거나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실적 체험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 때, 안조원이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유배되어 쓴 가사 「만언사(萬言詞)」가 그러하다.

(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입이 헤여 보소서 <제2수>

㉠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과 읍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릴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덤고 겹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 옥식 진찬(玉食珍饌) 어데 가고 맥반 염장(麥飯鹽藏)* 대하오며

금의 화복(錦衣華服)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鵠百結)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굴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우회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쏘아 내어
일분(一分)은 밥쌀 하고 일분(一分)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남방 염천: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

* 맥반 염장: 보리밥과 소금장.

* 격양가: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탐화봉접: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101.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사는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 ② 유배 시가가 조선 시대에 처음 창작되어 당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 ③ 유배 시가는 유배객으로서의 일상과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바를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 ④ 시조는 3장의 정형화된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정서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 ⑤ 정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유배객의 소망은 임금에 대한 충정보다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었다.

10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한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103. [A]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제3수'에는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군.
- ② (나)의 '제5수'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효와 관련하여 담겨 있군.
- ③ (다)의 '남방 염천 찌는 달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서, 유배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배객의 사실적 체험이 나타나 있군.
- ④ (다)의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다)의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에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유배를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만안사(안조원) <17-07 고3 인천시>

[101~103]

101.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 ① 1문단에서 가사는 연속체로,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1문단에서 '유배 시가는 고려 시대 정서의 「정과정곡」을 시초로 하여'라고 하였으므로, 유배 시가가 조선 시대에 처음 창작되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102. [출제 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⑤ '어와', '황금빛이로다'에서 화자는 전산 후산이 황금빛으로 물든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리가 화자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③ '좋은 음식과 진귀한 반찬'을 뜻하는 '옥식 진찬'과 '보리밥과 소금장' 즉, 초라한 음식을 뜻하는 '맥반 염장'이라는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103.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 ① (나)의 '제3수'에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충정이 담겨 있을 뿐,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나)의 '제5수'에서 임금을 잊으면 불효라고 한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정을 효와 관련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에서 화자 자신을 꽃을 담하는 벌과 나비인 '탐화봉접'에 비유하고, 화자가 개인적 잘못을 저질러 유배된 것은 '그물에 걸린 것'에 비유하고 있다.

<만언사(만조원) - 수능특강 57p 관련>

[104~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4B 고3 경기도>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자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A]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는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는고
 밥 싯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진들 배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짚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트니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돌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물러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 한출첨배(汗出沾背): 땀이 나와 등을 적심.
 * 종이노: 종이를 꼬아 만든 끈.
 * 자리노: 명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 천수만한(千愁萬恨): 이것저것 슬퍼하며 원망함.

10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05~106] 윗글과 <보기 1>, <보기 2>를 바탕으로 105번과 10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1>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윗글에서의 고통 받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 기 2>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人間) 큰 기들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짝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옵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하추동 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가니
 부귀연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功名(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번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 「만언사답(萬言詞答)」 -

10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 2>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꼬는 행위는 <보기 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 2>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 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 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106. <보기 1>의 ㉠ ~ ㉣를 고려하여 [A]의 양반과 <보기 2>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양반은 청자를 혼계하고 있고, 나 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양반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 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양반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나 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반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 하고 있다.
- ⑤ 양반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10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 ④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만언사(만조원) <15-4B 고3 경기도>

[104~107]

104.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④ 과거의 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등과 같이 앞 절과 뒷 절을 맞대응시키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와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에서 화자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동냥을 하고 사는 자신의 생활에 따른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앞일이 추성(秋聲)이라’에서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추성(秋聲)’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동냥도 한번이지 빌건들 매양일까’에서 동냥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법을 사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105.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③ 이 글의 ‘손가락’이 부르튼 것은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2>에서 ‘변화’를 겪은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동냥’은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2>에서 ‘손님’의 ‘설운 말씀’의 내용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글의 ‘절신날’을 끄는 화자의 행위는 유배지에서 겪는 <보기 2>의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화자는 ‘임금’을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보기 2>의 ‘천은(天恩)’이라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현실에 복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⑤ 이 글의 화자는 <보기 2>의 청자로 볼 때, ‘학’은 임금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소재로 <보기 2>의 청자인 ‘손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106. [출제 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

② ‘만언사답’은 ‘만언사’에 대해 화답의 방식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A]의 양반은 ‘코웃음에 비웃음’을 보이는 ‘주인’의 행위에 대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와 같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 2>의 나는 자연 현상 등의 예를 통해 청자의 상황을 위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양반은 청자인 주인을 훈계하고 있지 않다. ③ 양반은 청자인 주인을 설득하고 있지 않는 반면, ‘나’는 청자에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양반은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행동을 촉구하지도 않는다. ⑤ 양반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107. [출제 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③ ㉠은 가을날 새벽에 울면서 날고 있는 ‘외기러기’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임’을 떠올린다. 결국 ‘임’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